



고요하고 담대하게 위대한 70년의 궤적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70년간 청대인의 가슴에는
언제나 뜨거운 두 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교육구국(教育救國).
설립자 형제의 숭고한 민족애가
70년 전 우리의 강인한 신념이 되었듯,

실학성세(實學成世).
실용학문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막중한 사명이자 책임이 되었듯,

우리가 지켜온 오랜 철학과 가치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걸어온 삶으로, 살아온 자취로
때로는 눈 쌓인 대지처럼 고요하고 담대하게,
청주대학교가 위대한 70년의 궤적을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와우청대 2016 WINTER VOL. 234

CHEONGJU UNIVERSITY

WOW는 '세계를 향한 창
(Window of the World)'이라는
의미입니다.

겨울. 와우청대

WOW CHEONGDAE

사계절 강직함과 푸르름을 잃지 않고
오직 한결같음으로 뻗어 올린 지조와 절개.
대나무의 울곧음을 닮아가는 우리, 청대인



Student First
청주대학교,
자연과 첨단이 어우러진 그린캠퍼스를 짓다

청인보 淸人譜
영화 <력키> 감독 이계벽 동문
세계 최대 옥상정원 설계자 이애란 교수

특별대담- 융복합의 시대를 논하다
열린 미디어와 콘텐츠가 만드는 새로운 미래,
어떻게 담고 이야기할 것인가?
국어국문학과 소인호 교수 & 신문방송학과 최영준 교수





건강한 치아는 밝은 웃음이 되고 따사로운 빛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아이들의 꿈은 자랍니다.
그 하나하나의 꿈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의 치아를 보살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단 하나의 이도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건강한 웃음이 가득 번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나눔이 그들에게 따사로운 빛이 되었길 희망합니다.
이웃과 함께 행복을 꿈꾸는 대학, 청주대학교가
해마다 꾸준히, 그 진심을 나누는 벗이 되겠습니다.

11월 3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우리대학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청주맹학교를 찾아 구강건강관리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총 8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봉사에는 충북 지역의 치과 의료진들과 충청대 등 타대학 학생들도 함께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발치와 스케일링, 레진 충전 등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학생들은 구강관리(잇솔질) 교육과 불소도포를 진행한
이번 청주맹학교 봉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와우청대

Cheongju University Magazine
2016 WINTER VOL. 234

청주대학교 소식지 (와우청대)의 '와우(WOW)'는 '세계를 향한 창(Window of the World)'이라는 의미와 함께 청주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한 우암산의 또 다른 이름인 '와우산'과 청주대학교의 발전과 성장에 감탄하는 의성어 '와우(Wow)'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와우청대

2016년 겨울호(통권 234호)
발행일 2017년 1월 16일
발행인 정성봉
편집인 이상철
발행처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Tel. 043-229-8011)
2850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기획 및 디자인 ㈜꽃피는청춘 (Tel. 02-3142-7373)
촬영 이원재
취재 이은형
가격 4,000원

Contents

02 총장실에서 온 편지
04 CJU Focus 청주대, NAVI Week 비교과 페스티벌 개최 외

진심眞心,
오직 학생을 향하다
08 Student First 청주대학교, 자연과 첨단이 어우러진 그린캠퍼스를 짓다
12 Special Interview 그린캠퍼스 조성사업단장 김미연 건축학과 교수
14 Special Preview 3월 개관 앞둔 중앙도서관 증별 주요 공간 미리 보기

명문名門,
이름을 남기다
16 청인보淸人譜 제1장 700만 관객 동원한 영화 <럭키> 감독 이계벽 동문
18 청인보淸人譜 제2장 세계 최대 옥상정원 설계사 이애란 환경조경학과 교수
20 청인보淸人譜 제3장 ROTC 후보생 하계입영훈련 전국 1위 이건희 학생 (군사학과 4학년)

돌입沒入,
진리를 탐구하다
24 특별대담- 융복합의 시대를 논하다 열린 미디어와 콘텐츠가 만드는 새로운 미래, 어떻게 담고 이야기할 것인가?
28 진리를 찾는 사람들 반도체 기술 융합의 선구자, 차세대반도체융합기술연구소
30 책에서 배우는 지혜 책은 나에게 부모 같은 존재요, 독서는 헤아리고 깨달아가는 여정이어려_국어교육과 황경수 교수

실천實踐,
세상을 밝히다
34 지역과 어깨동무 이웃과 세상을 향한 훈훈한 사랑, 연탄이 되어 겨울을 녹이다
36 지식과 재능의 선순환 젓가락 문화상품 개발하는 공예디자인학과
38 나의 세계문화 순례기 해외 자매대학 제2외국어 장학유학파견 프로그램 후기_일어일문학과 안소영

소통疏通,
오늘을 전하다
42 단신뉴스 청주대 대학원, 장학금 혜택 확대 외
44 인물뉴스 김찬석 교수, 인도네시아 포럼 연사로 참석 외
46 명사들과의 만남 곽상준 콜앤콜 대표이사 명사특강 외

48 발전기금 안내 발전기금 및 후원의 집 안내

겨울.



청주대학교의 새로운 비전과 저력을 보여줄 개교 70주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 새로운 희망의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주대학교 전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대학교를 사랑해주는 모든 분들이 꿈꾸시는 소망을 이뤄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은 청주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1947년, 광복 제1호 대학으로 출범한 우리대학은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일흔 성상(星霜)을 쉽 없이 달려왔고, 오늘날 중부권 최고 명문대학의 위상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학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날로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강력한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대학 구성원들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진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지 못한다면, 우리대학의 희망적인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학으로서의 생존과 발전을 지속해 나가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당면과제를 함께 공유하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총장에 취임하며 저는 '학생이 다니고 싶은 대학,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우선 당면과제인 재정지원제한대학을 탈피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

해 빠른 시일 내에 학교를 정상케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융·복합 및 특성화 교육과정 편성, 실험 실습 등 실무기능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혁신적인 학사구조 개편과 중장기 대학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대학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주대학교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
최근 수년간 우리대학은 구성원간의 갈등 속에 견디기 힘든 시련의 시기를 지내왔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어려움이 많을수록 서로 단결하고 분발해 부흥시킨다는 다난홍방(多難興邦)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고사는 수많은 고난이 사람들에게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뜻으로,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는 우리 청주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70년의 빛나는 역사와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야 할 역사적 소명이 있습니다. 밝은 미래를 향한 굳건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헤쳐나갈 일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대학의 70년 역사와 전통 안에 충분한 비전과 저력이 있습니다. 청주대학교의 새로운 비전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청주대학교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청주대학교 총장 정성봉



정성봉 총장, 시험기간 사랑의 간식 나누기 소통행보

12월 13일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정성봉 총장과 정진주 학생처장을 비롯한 우리대학 교직원들이 총학생회와 손잡고 사랑의 간식 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새천년종합정보관 3층 입구와 중문, 기숙사 앞에서 진행된 이번 소통행보에서 총학생회와 교직원들은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준비한 2,700개 분량의 햄버거와 음료수를 학업에 열중한 학생들에게 일일이 나눠주며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 대해 정성봉 총장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시험공부에 매진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간식을 나눠주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대학은 서로 화합하고 희망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정성봉 총장, 청주대-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협약식 참석

정성봉 총장은 12월 6일, 우리대학과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간의 사회공헌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봉 총장 이외에도 우리대학에서는 정진주 학생처장, 안영호 사무처장, 이상철 대외협력실장이, 적십자사에서는 성영용 회장, 최현복 사무처장, 강은주 구호복지팀장, 김영민 RCY본부장이 참석했다. 정성봉 총장과 성영용 회장은 "양 기관이 '사회공헌'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에 서명하면서 사회봉사와 나눔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주관을 펼치다

청주대, NAVI Week 비교과 페스티벌 개최

우리대학이 학생 생애주기에 따른 학생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전 학생과 교수가 참여하는 'NAVI Week 비교과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10월 27일부터 1주일간 진행된 'NAVI Week'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비전을 설계하고, 학습 및 취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채로운 비교과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했다. 이 기간 중에 학생들은 비전 및 진로설계를 위해 생애주기별 테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1학년은 대학생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도 진단, 비전 및 대학생활 설계, 토익 맛보기 등이, 2학년은 집중역량개발을 위한 '나' 발견하기(MBTI 특강), 진로 컨설팅 박람회, 청석 브런치 강좌, 체계적 자기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3학년은 '나'의 진로 발견하기(STRONG 검사), 비즈니스 마인드 및 현장 문제해결 역량 함양, 직업흥미도 진단 및 진로역량 개발, 목표 기업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적성 찾기에 도움을 얻었으며, 4학년은 성공적 취업전략 갖추기, 일자리 매칭 Fair,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한 셀프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또한, 교수에게는 교수역량 및 학생 지도력 향상, 강의CQI 보고서 작성, 학생상담을 위한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기회 제공 등을 통해 강의 질 제고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10월 27일에는 CBS TV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스타강사인 김창욱(서울여대 겸임교수) 씨의 '진로 및 비전설계 특강'이 이어졌고, 11월 1일에는 학생들의 참여동기를 높이기 위해 '총각네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와 소통대이너 오종철 씨가 꾸미는 '소통역량 향상을 위한 꿀통쑈'가 열렸다.

이 밖에도 영화학과 학생들이 제작한 단편영화와 함께하는 '무비무빙', UCC 개발 워크숍, 체험형 '심심(心心)풀이 캠프', 대학생활 '도래 멘토링' 발대식, Capstone Design 경진대회 등이 열렸다. 또 각 학과별 현장실습 및 견학, 학술제, 선후배와의 만남, 전공퀴즈대회, 전문가특강 등 전공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총학생회 주관의 체육대회 및 축제까지 진행되는 등 풍성한 '비교과 학습 페스티벌'로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Career

생애주기별 테마 프로그램 NAVI Week

학생의 생애주기에 따른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NAVI Week는 자기비전을 설계하는 단계인 1학년, 자기 역량 개발이 필요한 2학년, 자신에게 맞는 진로적성을 찾아 가는 3학년, 그리고 실전취업 전략이 필요한 4학년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대학홍보의
새로운 창구를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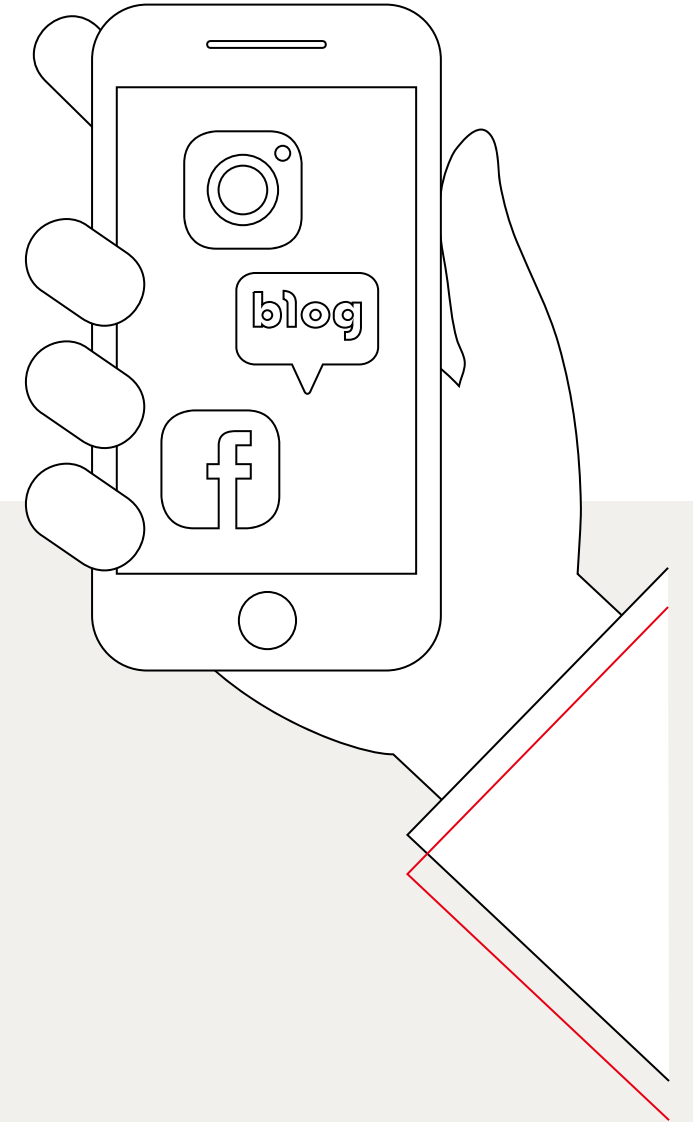
청주대, 온라인 홍보 채널 강화

우리대학이 학내외 구성원들과의 소통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온라인 홍보 강화에 나섰다. 우리대학은 최근 다양한 뉴미디어를 통해 학내외 SNS 이용자와 활발한 소통과 공유를 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을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해 학내 구성원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 학교 홍보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보완 작용을 통해 전략적으로 학교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페이스북과 블로그 기자단을 확대하는 등 학내외 각종 정보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온라인 홍보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수험생을 비롯한 전국의 고교생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등 정보습득의 대부분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찾는 점을 고려해 정시모집 등 입시홍보에도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대학의 인스타그램에는 2017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통해 수험생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물론, 크고 작은 우리대학의 행사 소식이나 수능 성적 발표일,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일 등 특정일에 맞춰 제작된 온라인 콘텐츠 게시물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대학은 공식 SNS 오픈 이후 기념 이벤트를 여는 등 학생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번 온라인 홍보 채널 신설 및 강화에 대해 청주대 이상철 대외협력실장은 "학교와 관련된 입시정보와 언론소식, 이벤트는 물론 학교 주변의 맛집 등 세세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대학의 온라인 홍보 채널, 어디서 만날 수 있나?

재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험생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는 우리대학의 공식 온라인 홍보 채널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청주대학교 공식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cjuonline>

청주대학교 공식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cjuonline>

청주대학교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cjuon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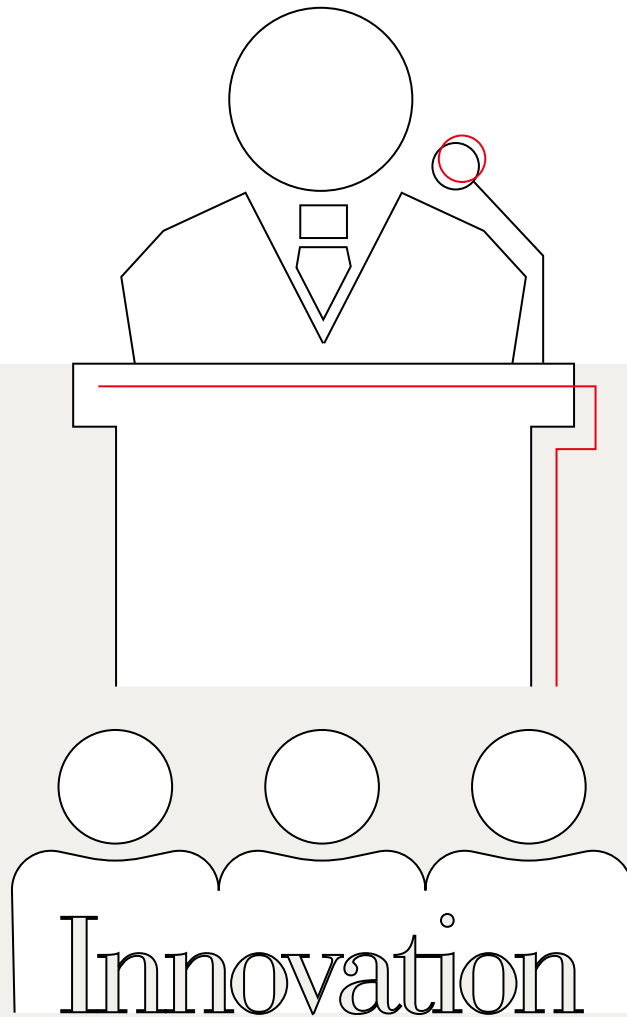
미래지향적인 대학교육의
정책을 모색하다

청주대, 대학교육 혁신 연속강좌 실시

우리대학이 대학교육 정책에 대한 교직원의 이해도 제고와 미래지향적인 학사시스템 모색 등을 위해 처음으로 혁신 강좌를 실시했다. 우리대학은 고등교육 관련 전문가를 통한 활로 모색과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선진적인 대학교육 시스템 학습, 학사구조 등 미래지향적인 대학교육 정책 입안 모색 등을 위해 4회에 걸쳐 전문가 혁신 강좌를 실시하였다.

가장 첫 번째 강의는 10월 18일 박승철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나서 '고등교육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박승철 총장은 성균관대 교무처장, 가천대 부총장,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사립대분과위원장 등을 거쳤다. 이날 박승철 총장은 대내외 교육여건에 대한 현실인식과 국가정책 이해도 제고를 통해 대학교육 혁신의 주체인 교직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두 번째는 대구가톨릭대 ACE사업단장과 CK사업추진단장을 거쳐 현재 대구가톨릭대 기획처장을 맡고 있는 김기대 교수가 '선진학사 구조 사례 및 전공교육의 수월성 제고방법'에 대해 강연했다. 김기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공교육의 방향을 살펴보고 국내 전공교육 혁신우수대학 사례를 청주대에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11월 10일에는 경희대 러시아어학과 교수 겸 한국교양교육학회장을 맡고 있는 윤우섭 교수가 나서 국내 교양교육의 프레임 변화 및 점차 중요해지는 학생학습 역량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연속강좌의 마지막은 11월 29일 최재봉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창조경제본부장 겸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ICT국제화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나서 '글로벌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대학교육 혁신방향 탐색'이라는 주제로 강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대학 혁신을 위한 연속강좌의 기대효과

우리대학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국내 고등교육 관련 전문가 초빙 연속강좌를 진행함으로써 학사구조 등 미래지향적인 대학교육 정책 입안과 선진적인 대학교육 시스템을 학습하면 변화하는 대학정책에 대한 교직원의 이해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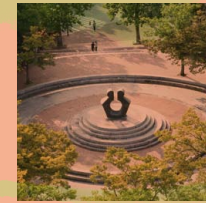
진심眞心 오직 학생을 향하다

학생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학,
그래서 학생 모두가 행복한 대학,
존중과 배려로 오직 학생을 섬기는 진심이
학생·제일주의를 실천하는 청주대학교의 힘입니다.

08

Student First

청주대학교,
자연과 첨단이 어우러진 그린캠퍼스를 짓다



12

Special Interview

그린캠퍼스 조성사업단장
김미연 건축학과 교수



14

Special Preview

3월 개관 앞둔 중앙도서관
층별 주요 공간 미리 보기



학생을 위한 혁신과 변화로 자연과 첨단이 어우러진

그린캠퍼스를 짓다

그린캠퍼스 사업 선정으로
지원받는 국가보조금 총액

1억 2천만 원

350억 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총 예산 규모

17개

2017년 1월 현재까지 지열설비
시스템이 모두 완료된 건물 수

그린캠퍼스 조성은 21세기 대학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책임이다. 지식창출의 현장인 대학 캠퍼스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아이디어와 실천이 도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14일 우리대학은 그린캠퍼스 조성사업단 선포식을 열고, 그린캠퍼스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실천에 들어갔다. 이제 '그린캠퍼스'는 청주대학교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또 하나의 핵심사업이 되고 있다.

청주대학교 발전의 새로운 동력원,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지난 4월, 우리대학은 정부의 친환경 성장 정책을 대학의 교육환경에 반영하는 그린캠퍼스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이 사업으로 우리대학은 올해부터 3년간 매년 4천만 원씩 총 1억2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자연과 첨단이 두루 어우러진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해가고자 하는 우리대학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새로운 동력원을 얻게 된 것이다. 이는 또한, 그린캠퍼스 비전을 바탕으로 한 환경친화적인 교정 조성을 통해 학생중심의 캠퍼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대학의 미래 비전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대학은 그린캠퍼스조성사업단을 구성하여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미래의 친환경 인재양성을 위한 그린 커리큘럼 개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교정 구축, 지역사회의 친환경 성장 기여 등을 골자로 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19년까지 대학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줄이고, 대학구성원의 자전거 이용 수준을 매년 5%씩 증가시킬 계획이다. 캠퍼스 내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30% 절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보행 우선 시스템 구축, 우암산 순환로 둘레길 조성, 우암산 녹지의 흐름을 도심으로 연결하는 등의 친환경 교통망 조성을 통해 생태축을 복원할 예정이다.



인류의 미래와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캠퍼스의 실현

우리대학의 그린캠퍼스 조성 계획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온 '청주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의 중요한 한 축이기도 하다.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천하는 문제는 단순히 환경문제를 뛰어넘어 이제는 대학의 장기발전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대학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 때문이다. 우리대학은 2005년부터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건물 리모델링을 통하여 친환경 캠퍼스 조성사업에 2,000억 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다. 현재 17개 건물의 리모델링을 모두 마쳤고, 향후 계획 중인 '2030 마스터플랜'을 통해 남아 있는 4개의 건물도 추가로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그린캠퍼스를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학 내 에너지 사용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100% 목표

우리대학은 현재 전체 시설 가운데 지열설비 대체 66%를 달성하여 연간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100% 지열설비를 완성할 계획이다. 현재 리모델링이 되지 않은 건물의 높은 에너지 사용과 시설의 노후화를 점차 보완해 캠퍼스 전체의 냉·난방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형태로 확장해나갈 것이다.

글로벌 캠퍼스에 부합하는 그린빌딩 실현, 지속가능한 모델 제시

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건물의 외피계획부터 성능에 이르기까지의 통합적 고려를 통하여 경제적이고 혁신적인 그린 리모델링을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고,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30% 절감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캠퍼스 내 전체 건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리모델링 전후의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세우고 있다.





우리대학은 2019년까지 대학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줄이고, 대학구성원의 자전거 이용 수준을 매년 5%씩 증가시킬 계획이다.



3월 개관 예정인 중앙도서관 전경. 학생들에게 최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중앙도서관 1층 로비 조감도. 2층까지 서가를 연결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했다.

지역에 공헌하는 친환경 캠퍼스 모델 구축, 지역과 공유하는 친환경 교통망 구축

청주대학교는 교지의 모양이 길쭉하고 중심성이 부족한 형태로, 학내 구성원들의 경우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이 대부분이다. 보도의 폭도 좁고 노후화되어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노면주차가 교내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학생들의 보행에 불편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친화적인 통합적 주차장 구축이 절실하다. 또한, 우리대학은 우암산 자락에 위치해 있고, 경계면에 자동차 전용도로인 우암산 순환로가 있다. 이는 교내 통과도로를 양산하고 청주시민이 이용하는 우암산 산책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둘레길로 조성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정 조성과 지역 커뮤니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어 이 부분 또한 사업의 일환으로 고려되고 있다.

융복합형 Master 인재 양성, 녹색일자리 창출에 부합하는 인재 배출

대학으로서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녹색성장을 견인할 인재 양성이다. 우리대학은 현재 지역산업과 부합하는 다양한 융복합 전공과 교과과정의 개발을 꾀하고 있으며, 생활공간디자인 융복합 전공, 건설환경 정보 트랙, 태양광에너지 융합기술인력 양성 등을 중심으로 한 그린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다.

IT기술을 결합한 중앙도서관의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

소통의 창

1층 메인 출입구에서 도서관의 공지사항과 안내,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멀티비전의 대형 안내 시스템. 도서관뿐 아니라 교내 모든 안내와 정보를 통합으로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이 학교의 중심임을 상징하게 된다.

All about book

신착 도서, 추천 도서, 베스트셀러 등 도서정보와 학생 추천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 독서 서비스의 확장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여주고, 학생들이 주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돕는다.

Library Board

주요 동선에서 대기 시간 동안 도서관 관련 정보 제공 및 총별로 특화된 정보 제공 서비스 시스템. 각 층 엘리베이터 사이에 설치되어 있어 도서관 내 게시공간이 확보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Global Info

교환학생 정보, 해외 자매대학 공지 등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는 특화 공간 서비스 시스템. 학생들의 교류를 돕고 외국 학생들의 언어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

E-Newspaper

키오스크를 통한 신문 접근으로 편의성을 제공하는 첨단 시스템. 다양한 신문매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콘텐츠 관리가 용이하다.

365 스마트시스템

1년 내내 자유롭게 도서 대출과 반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서관 운영 시간 이외에도 자유롭게 책을 만나고 대출할 수 있다.

그린 리모델링 위에 최첨단의 옷을 입게 될 중앙도서관

친환경 캠퍼스 조성과 이에 따른 교육 및 연구, 참여와 확산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대학 중앙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는 3월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다. 1984년에 개관한 중앙도서관은 건물과 시설의 노후화로 이용자의 자료열람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장서 수장 공간 부족, 서가 밀집에 따른 건물 안전성 저하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와 같은 환경을 개선하고자 우리대학은 도서관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주대의 봄, 즉 '청춘(淸春)'이라는 콘셉트로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학생들에게 생활 속 최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경험하게 해줄 중앙도서관의 변신은 교육환경 변화의 측면에서 새로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 건물로의 변신도 중요한 대목이다. 총 예산 350억 원을 들여 카페테리아와 옥상정원, 실내정원, 그룹 스테디룸 등을 고루 갖춘 최첨단 도서관의 면모를 자랑하게 될 중앙도서관은 친환경 캠퍼스와 최첨단 기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미래지향적 신개념 도서관, Smart-Service Library

새롭게 탄생할 중앙도서관은 인쇄매체 장서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전통적 의미의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원을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보생산 및 유통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시대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멀티미디어 체험 공간을 확대하고 강화했다. 또, 최신 정보장비를 설치해 Web DB, CD, DVD, A/V Tape 등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Smart-Service 도입으로 디지털 정보의 개방과 소통이 자유로워지게 된다. ①

사람, 공간, 에너지 공정의 합을 도출해내는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그린캠퍼스 조성사업단장
건축학과 김미연 교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각 대학마다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그린캠퍼스조성사업에 선정된 우리대학은 대학 건물과 공간들의 물리적 변화와 교육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바탕으로 진정한 캠퍼스의 변화를 그려가고 있다. 학생들의 대학생활이 조금 더 안전하고 풍요롭길 바라는 김미연 교수의 고민에서 시작된 우리대학의 그린캠퍼스 조성사업단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보았다.

지난 11월에 우리대학의 그린캠퍼스조성사업단이 본격 출범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건축을 전공하고 가르치다 보니 학교 전체 마스터플랜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공대학 앞은 비좁은데다 노면 주차 때문에 학생들에겐 다소 위험한 공간이 되어버렸고, 향후 이공대학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공간에 큰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보행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학생들이 주로 버스를 타고 기숙사에서 강의동을 오가는데, 걸거나 자전거를 타고 막힘 없이 캠퍼스 곳곳을 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면 학생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싶었습니다. 환경만 잘 조성하면 차를 덜 이용하게 되고, 자연스레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도 있죠. 그것이 그린캠퍼스의 시작입니다. 또 우리대학 경계면에 우암산 자동차 전용길이 달아 있는데, 이를 둘레길로 바꾸면 훨씬 더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제 고민들을 학교 마스터플랜과 접목해 제안서를 냈고, 사업에 선정돼 사업단이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총 사업기간이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린캠퍼스조성사업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지요.

2015년 파리기후논의(COP21)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당사국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했는데, 우리나라는 37%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상당히 많은 양을 줄여야 합니다. 대학 역시 독립기관으로는 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대학이 앞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단이자 덕목이 되었습니다. 또 대학은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이 분야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업단은 물리적 환경변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 교육을 동시에 진행해나가게 됩니다. '에코(Eco)'라는 용어는 친환경 녹지조성과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대학 건물을 비롯해 모든 물리적 환경 변화의 프레임을 저탄소형 발전방향으로 수정 보완하여 실천할 것이고, 교육 측면에서는 학생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차원에서 환경보호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또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학마다 에코캠퍼스, 그린캠퍼스를 표방한 교육과 캠페인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단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펼칠 예정이신지요.

다른 대학들의 사례를 보면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빗물이나 화장실 용수 재활용, 에너지 절약 캠페인, 교내 녹지 공간 조성 등이 주요 활동으로 꼽힙니다. 우리대학은 최근 학생들의 봉사활동으로 잔반 줄이기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공대학 연못에 오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리농법처럼 연못을 정화하자는 목적도 있지만 학생들이 연못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청소에 참여하면서 생태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긴 연못, 환경에 관심을 갖게 하자는 것이 더 큰 취지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활용 쓰레기통 디자인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6종의 재활용 쓰레기통을 잘 분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디자인이 완성되면 실용화도 도모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에코캠퍼스>라는 교과과목을 새롭게 도입해 전 학년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환경과 에코캠퍼스를 위한 여러 환경 실천 방법들도 다룰 예정입니다.

청주대학교는 리모델링 건물에 지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예전부터 지역의 환경 리더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압니다.

네, 학교 역사가 깊다 보니 꾸준히 건물 리모델링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대학 지반 상황이 견고해서 지열에 합리적이라는 결과를 얻어 2006년부터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예술대학 신관 등에 모두 지열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강의실마다 냉난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효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에너지 절약에 꽤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이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도모해온 녹색활동의 범위가 다양합니다. 우암산과 무심천 자연정화 활동, 청주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봉사, 업사이클 초록지구 캠페인 등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벌여온 사업입니다. 또 2009년부터 현재까지 녹색청주 네트워크와 그린스타트 운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충청북도 내에 그린캠퍼스사업을 진행하는 대학은 우리 말고도 충북보건과학대, 중원대, 강동대가 있는데요. 매달 사업단장들이 함께 모여 사업 진행 및 교류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린캠퍼스조성사업이 앞으로 청주대학교에 가져올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린, 에코라는 개념이 단순한 에너지 절약 차원을 뛰어넘어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이해해 나가기 바랍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건물, 사람을 생각하는 동선,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한층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업단이 가장 먼저 달릴 것입니다. 걷기 좋고 안전한 캠퍼스, 더불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캠퍼스로 변모하는 청주대학교를 위해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는 3년 후에도 꾸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데, 다행히 리빙플랫폼지역밀착형사업단에 그린캠퍼스를 위한 예산을 일부 확보해 둔 것이 있어 3년 후에도 우리대학은 2년 더 사업을 연장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효율적인 학습과 안락한 휴식이 공존하는 스마트 도서관의 탄생

3월 개관 앞둔
중앙도서관 총별 주요 공간
미리 보기

우리대학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고, 비품 설치 및 자료이전을 거쳐 오는 3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 새롭게 태어날 도서관은 모든 시설이 최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열린 소통과 지적 몰입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110만여 권의 장서 보유는 물론이고 2,400여 석의 좌석을 갖춘 열람실과 학생복지를 위한 카페테리아, 옥상정원, 실내정원 아트리움, 그룹 스테디룸까지 다양한 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1F



휴식과 소통의 오픈 커뮤니티 공간

스마트 시스템을 바탕으로 도서관 자료 검색대와 좌석 배치, 전자뉴스 검색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소통의 창을 구축했다. 특히 '청주대 라운지'는 숲을 모티브로 한 오픈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자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도서관으로 다가가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주요 시설

열람실, 365스마트시스템, 청주대 라운지, 정보검색 라운지, 다목적 전시 공간, 복사 및 출력실, 전자사물함실, 이용자서비스센터

2F



글로벌 캠퍼스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보 공간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PC 검색대와 글로벌 정보 습득을 위한 공간(글로벌 스테디 라운지)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동형 휴게 소파 등 다양한 좌석을 배치하여 자유로운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주요 시설

대학원 열람실, 그룹 스테디룸, 멀티미디어 감상실, 특별 열람실, 글로벌 스테디 라운지, 노트북 열람실, 조망형 테이블

3F



도서관의 진화를 엿볼 수 있는 신개념 서가

도서 열람과 휴게가 가능한 열람휴게공간이다. 몰입과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들의 동선과 시선을 고려한 유리전시 서가와 낮은 서가를 함께 배치했다.

주요 시설

제1자료실(종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연속간행물실, 자료실 열람석, 그룹 스테디룸, 조망형 테이블

4F



디지털 디바이스에 충실한 스마트 라이브러리

일반 자료열람과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자료 검색대와 자가대출 반납기 등의 디지털 디바이스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였다. 또한, 서가 사이마다 열람 테이블을 배치하고, 학습과 사색이 가능한 조망형 테이블을 남향 창가에 배치했다.

주요 시설

제2자료실(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역사), 자료실 열람석, 그룹 스테디룸, 조망형 테이블

5F



학습과 사색을 접목시킨 새로운 공간

우암산과 청주대학교 교정이 내려다 보이는 동쪽 창가에 에그 체어와 사이드 테이블 등을 배치해 학생들의 사색공간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시설

제3자료실(문학), 민족음악자료실, 특수자료실, 향토자료, 고서실, 중국관, 사색공간, 조망형 테이블, 학술정보지원팀, 중앙도서관장실

명문名門

이름을 남기다

묵묵히 걸어온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온 궤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말하는 청대인. 그들의 이야기에서 삶의 경이로움은, 세상을 향한 열정과 지혜를 발견합니다.

16

청인보 제1장
700만 관객 동원한 영화 <럭키> 감독
이계벽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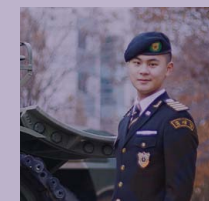
18

청인보 제2장
세계 최대 옥상정원 설계자
이애란 환경조경학과 교수



20

청인보 제3장
ROTC 후보생 하계입영훈련 전국 1위
이건희 학생



700만 관객 동원한 영화 <럭키> 연출



영화를 만드는 '이계벽'이라는 사람. 누군가는 그를 두고 '틀뜨지 않아도 유쾌하다' 말했다. 지난 가을 개봉한 영화 <럭키>처럼 말이다. '열혈 영화 청년'이었던 그가 20년 영화인생 내공을 담아 두 번째 장편 영화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리고 코미디 영화로는 드물게 7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수많은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안겨준 그에게서 여전히 살아 있는 열혈 청년의 모습을 보았다.

누구의 것도 아닌
'이계벽표'
코미디 영화 만들기

이계벽 동문
영화감독
연극영화학과 92학번

영화 <럭키>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인생이 잠시 뒤바뀐다는 설정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영화 내내 유쾌하면서도 의외의 감동도 있었고요. 누적 관객수도 상당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일본 우치다 겐지 감독의 <열쇠 도둑의 방법>이 원작입니다. 평소 그 감독의 작품이 좋아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인연이 닿아 직접 각색을 하고 연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비누에 미끄러져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목욕탕 열쇠를 바꾸는 바람에 다른 이의 삶을 살아본다는 큰 틀을 가져왔고, 나머지 이야기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시사회에서 관객들이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듯한 반응을 보여주셔서 시작이 좋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2005년 <아수와 미녀> 이후 10년 만에 장편영화를 연출하셨어요. 두 영화 모두 코미디 장르이면서도 무언가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이계벽표 코미디 영화라고 보면 될까요? 사람들이 그래요. 왜 코미디 영화만 만드냐고. 사실 학교 다닐 때에도 동기들은 진지한 영화 만들 때 저는 코미디가 좋아 즐곳 코미디 영화를 만들었어요. 제 성격 자체가 그래요. 재미있지만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영화들이 좋았습니다. 우디 앨런처럼 용기 있게 코미디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의 작품을 보면서 일상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어일선 감독님, 김경식 감독님 모두 학교 선배님들인데, 학교 다닐 때 제가 기죽지 않고 작업할 수 있도록 용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나다운 것을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셨죠. '계벽이 영화 같다'는 말을 들을 때가 좋습니다. 이번 영화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 역시 응원과 지지가 중요한가 봅니다. 그리고 보니 이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네요. 졸지에 무명배우가 되어 버린 킬러에게 여배우의 진심 어린 응원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그 무명 배우는 죽으려 했었잖아요. 남의 인생을 사는 킬러는 너 무나 열심히 살고 말이죠. "너의 인생을 살아 보니 괜찮았다. 나의 인생을 바꿔보고 싶을 정도로."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이가 다른 이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살면서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반전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말해 주고 싶었습니다. --- <봉준호를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학생들이 봉준호 감독을 만나고 싶어서 이런저런 노력 끝에 인터뷰에 성공하는 이야기를 담았는데, 감독님께서도 학창시절 이런 경험 있으셨죠? 당연하죠. 대학 1학년 때 홍상수 감독 데뷔작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 나왔어요. 느낌이 대단했죠. 홍상수라는 감독이 궁금해졌고, 수소문 끝에 촬영감독과 조감독이 학교 선배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분들 설득해서 홍 감독님의 두 번째 영화 <강원도의 힘>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통편집 되었지만요. 히하하.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배우에게 맡기는 식의 촬영 현장이 무척 독특했어요. 현장에 나가 계시는 선배님들을 통해 무보수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배웠죠. 촬영보, 연출보로 일하면서 영화하며 살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미국으로 유학 갈 마음도 먹었고요. 정말 영화 자체를 미친 듯 좋아했어요. 미국에서 2년 공부하고 돌아와 만난 분이 바로 박찬욱 감독님입니다. <복수는 나의 것> 촬영 땀 연출부 막내로, <올드 보이> 땀 조연출로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현장에서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연출 방향대로 스텝들을 끌고 가며 끝까지 설득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죠. 영화는 모두의 작업이잖아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죠. 시나리오 완성부터 캐스팅하고, 촬영하고, 후반작업하고, 개봉할 때까지 매 순간을 설득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귀를 열어 놓되 자신의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더 할 만합니다. --- 연출 이전에 시나리오 작업으로 먼저 인정받으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어떤 영화인으로 남으실 건가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죠. 영화를 보고, 평론하고, 시나리오 쓰고, 만들고, 영화 보는 것만큼 재미있는 것이 시나리오 작업할 때입니다. 이야기를 구상하고 쓸 때 자신감과 공상이 막 넘쳐나 주체가 안 될 정도죠. 급하지 않게 천천히, 저만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필름으로 완성하는 과정이 마치 인생 같아서 앞으로도 제 일을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기네스북 등재된 세계 최대 옥상정원 설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옥상에는 아주 길고, 넓고, 또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 15개의 건물이 이어진 옥상을 따라 자연이 숨 쉬는 하나의 거대한 공원 같은 정원을 설계한 이가 우리대학 환경조경학과 이애란 교수다. 총 길이가 3.6km에 달하고, 얼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한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항상 사람과 자연 사이 소통을 고민하는 이애란 교수의 감성에 귀 기울여보았다.

사람과 자연에 대한
깊은 통찰로
소통의 정원을 만든다

이애란 교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설계자
환경조경학과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 기네스북에 오른 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사진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상당히 웅장하고 매력적인 모습이더군요. 정원을 직접 계획하고 시공 감독하셨을 때의 기억이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공식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청주대학교에 오기 전까지 일했던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시작한 프로젝트 였는데, 그곳에서 청사 마스터 플랜 전반을 진행했고 저는 조경설계를 담당했었습니다. 국제공모전부터 따지면 벌써 10년 전 일이네요. 20년 가까이 실무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일을 계획하고 경험했지만, 정부세종청사 프로젝트는 제게도 두고두고 잊지 못할 일입니다. 제가 운이 좋았어요. --- 세종청사는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건축물과는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자연친화적인 행정기관을 지어보자는 것이 설계의 기본 철학이었습니다. 청사의 부지가 금강이 흐르는 장남평야였어요. 길게 산들이 펼쳐져 있고, 고라니가 뛰어 노는 곳이었죠. 이 아름다운 자연의 공간에 한 동씩 건물을 세워 올리는 것은 그곳의 모든 흐름과 밸런스를 깨뜨리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람길과 물길, 녹의 길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과 어우러진 청사를 짓겠다고 제안했고, 그것을 당시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죠. 등고선을 고려해 건물을 배치했는데, 건물들이 강을 향해 선형으로 이어지는 설계가 나왔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이루었던 계획이었어요. 최고로 높은 건물이 6~7층 정도의 높이였는데, 이것은 원수산과 금강을 사진으로 연결했을 때 어디에서든 자연 경관을 가리지 않는 높이입니다. 또 신뢰와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잘 이뤄지는 사회에 대한 염원을 담아 비전을 제시했어요. 1층은 시민들에게 열려 있었고, 2층부터는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옥상을 경사면으로 해서 시민들이 옥상 끝까지 오를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종청사는 지상부터 옥상정원까지 지형에 순응하는 '플랫 시티(Flat City)', 정부와 시민이 감과 울의 관계가 아닌 '링크 시티(Link City)', 물질의 재순환이 일어나는 '제로 시티(Zero City)'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 정부가 지향해야 하는 바를 건축물에 모두 담아낸 것 같습니다. 전체 청사 전경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여름엔 온통 녹색이고, 가을엔 작은 단풍 축제장, 겨울엔 온통 설국이에요. 15개 동 전체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더불어 옥상정원 자체에 자연과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정원설계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민과 관의 관계도 자연의 흐름과 같기를 바랍니다. --- 세종청사 옥상정원을 찾는 일반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역사길과 들꽃길, 너른길처럼 테마길이 있어서 많이들 찾아주고 계세요.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옥상정원은 힐링 공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연성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낮은 층에는 비교적 큰 나무를 심고, 점차 옥상으로 올라갈수록 키 작은 식물들을 심어 멀리 조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조경 설계뿐 아니라, 마을 가꾸기나 시민공원 조성 같은 일에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오신 것으로 압니다. 교수님의 다양한 활약들이 환경조경학과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동기부여와 자극을 줄 것 같은데요. 평소에 '부분과 전체'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요. 수업시간에 늘 이야기 하죠. "큰 것도 해보고 작은 것도 해봐라." 큰 부분을 읽어낸 다음 작은 것들을 두루 경험하면 통찰력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잘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요. 2012년까지 실무를 진행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현장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소통하다 보니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논리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에게 다르게 존재하는 '타고난 장점'을 뽑아내 주면 기가 막히게 성장합니다.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꽃으로 피다' 게릴라 가드닝 PM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학생들도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했어요. 게릴라 가드닝은 청주시에서도 진행했고, 꽤 성공적이었죠. 자신의 전공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실력을 인정받는 경험은 무척 중요하거든요. 땅은 우리 국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모두를 위한 공간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는 일에는 다리 역할이 필요한데, 제가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탄탄한 다리, 꼭 필요한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

ROTC 후보생 하계입영훈련 전국 1위



군사학과 제복을 입고 나타난 그의 왼쪽 가슴엔 태극기가 달려 있었다. 그 아래엔 성적우수자와 삼점우수자에게 수여하는 배지, 그리고 30회 이상 헌혈했음을 증명하는 배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지난 8월, 전국의 학군단 ROTC 후보생을 대상으로 열린 하계입영훈련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이건희 학생은 이제 곧 대한민국 군인이 된다. 신뢰 받는 군인을 향한 그의 꿈이 멋진 날개를 활짝 펼 순간이 올 것이다.

국민의 신뢰받는 당당한 군인을 꿈꾸다

이건희 학생

ROTC 후보생 하계입영훈련 전국 1위
군사학과 4학년

전국 ROTC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한 하계입영훈련에서 1위를 했다고 들었어요. 110개 대학에서 온 후보생 3,900명 가운데 탑에 오른 셈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청주대학교 학군단 개설 이래 최초의 일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더 기뻐했습니다. 충북 피산 육군학생군사교육단에서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뛰며 노력했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 정도로 좋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부모님도 무척 기뻐하시고, 군사학과 최초의 1위라 교수님들과 학교에서도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언단에 올라 메달을 받을 때 함께 훈련에 참여한 4천 명의 후보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쳐주었는데, 그 소리가 정말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군인이 꿈이었는데, 그 꿈에 한 발짝 다가선 기분이었습니다. --- 훈련은 많이 힘들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들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4학년은 훈련 강도가 조금 더 센 편이라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팀 플레이를 요구하는 훈련이 주었는데, 분대 공격, 분대 방어, 사격, 독도법이 평가 항목이었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달리기 같은 체력 테스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분대원이 직접 작전회의를 하고, 적군의 침투를 대비한 경계감화나 폭탄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 훈련도 했습니다. 산속에서 교관이 "적 출현!"이라고 외치며 상황을 만들면, 돌아가면서 지휘관의 역할을 하고 그 능력을 평가받는 방식입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영 밖에서 하루 종일 훈련을 마치고 들어와 오후엔 체력 단련을 하고, 저녁엔 각자 공부를 했습니다. 명령 하달이나 지휘와 관련해 가상 시나리오를 적어 내려가는 연습이었습니다. 학과에서 4년 동안 꾸준히 강조해왔던 것이 학과 공부 말고도 체력 단련과 철저한 자기관리 습관이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군인이 꿈이라고 하니 지난 여름날의 경험이 무척 소중한 것 같고, 각오 또한 이번 훈련을 계기로 새로워졌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곧 졸업인데 어떠세요. 졸업하면 진짜 군인이 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꿈꾸어온 일이라 그런지 정말 좋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 군인에 대한 선입견이 존재하고, 인식이 그리 좋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항상 속상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숭고한 일이고, 목숨을 거는 직업인데 함부로 말하고 비하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감히 바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 군인이 꿈이야'라고 말할 때, '멋있다, 고맙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건희 학생은 어떤 군인이 되고 싶은가요? 무엇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인입니다. 총을 처음 만졌을 때 느낌이 꽤 차가웠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화약 냄새가 확 퍼져 나오는데, 그때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감 없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복을 입으면 저도 모르게 심장이 뜨거워지는 걸 보니 땀속부터 정말 군인이 되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 신뢰받는 군인이 되기 위해선 현명한 리더십과 그에 못지않게 울곧은 인성이 겸비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제복을 입고 공부한 지난 4년 동안 좋아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신났습니다. 군사학개론, 무기체계, 군사과학기술, 전략 등.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구분해 정해 놓고 실천해 왔습니다. 꿈과 목표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꿈은 제 인생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제 꿈은 국방부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 큰 꿈을 위해 대학시절엔 3~4개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왔습니다. 군사학과에서 빛나자, 군사학과 출신답게 행동하자, 특급전사가 되자, 외국어 한 가지는 잘하자. 이렇게 말입니다. 스스로 만족스러울 정도로는 지켜온 것 같습니다. 요즘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언어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이제 임관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울 겁니다. 조금씩 제 꿈을 이뤄가는 로드맵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꿈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도 작은 목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웃음) 리더십과 인성을 겸비한 대한민국의 멋진 군인이 되겠습니다. ㉠

We are young!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뜨거운 오늘을 살고,
 빛나는 내일을 준비하는
청.대.인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조성욱, 2학년 김관후·김문경



2016 대학창의발명대회 대통령상 수상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원이 주관한 '2016 대학창의발명대회'에서 '양방향으로 사용하는 휠체어'라는 발명 아이디어를 출품한 조성욱·김관후·김문경 학생 팀은 전국 134개 대학 4,636건의 출품작과 치열한 경합을 거쳐 올해 최고의 대학생 발명상을 수상했다.

건축학과 3학년 임재선·최세린·이범호



한국건축문화대상 최우수상 수상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한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임재선·최세린·이범호 학생의 작품 '엇갈린 시간을 잇다'는 건물 내부를 비워 주민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시간 공유 플랫폼'을 통한 커뮤니티를 이끌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항공기계공학과 2학년 명중호·문석준·남도경



한국정밀공학회 창의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정밀공학회의 미래정밀공학자위원회가 주최한 '제1회 대학생 정밀공학 창의경진대회'에서 명중호·문석준·남도경 학생은 '숫피닝 임펠러의 투사 효율 향상을 위한 개별요소해석 기반의 블레이드 부품의 최적 형상설계'라는 작품으로 66개 참가팀 중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컴퓨터정보공학과 3학년 차주현·최재학·양승대



한국재활복지공학회 논문 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재활복지공학회 정기학술대회 학부생 논문 경연대회에서 컴퓨터정보공학과 3학년 차주현·최재학·양승대 학생이 '시각장애인용 보행자 길 찾기 시스템 구현'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자공학과 창업동아리 '에너지뱅크' 팀



제1회 BIXPO 2016 국제발명대전 동상, 특별상 수상

한국전력공사(KEPCO)가 주최한 국제발명가협회(IFIA) 공식 인증대회 '제1회 BIXPO 2016 국제발명대전'에서 '에너지뱅크' 팀은 '누전 위치감지기'라는 발명 아이디어로 전기·에너지·ICT·친환경에너지 부문 동상과 미국 전력연구원(EPR)이 수여하는 특별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청주대학교 GTEP 사업단



2016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한 '2016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에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유무'에 관한 주제로 연극을 공연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GTEP 사업단 참여학생들은 부상으로 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

몰입 沒入

진리를 탐구하다

학문을 통해 어떠한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는 대학, 지성의 너른 광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 본연의 자세를 지켜나가겠습니다.

24

특별대담- 융복합의 시대를 논하다
 열린 미디어와 콘텐츠가 만드는 새로운 미래,
 어떻게 담고 이야기할 것인가?



28

진리를 찾는 사람들
 반도체 기술 융합의 선구자,
 차세대반도체융합기술연구소



30

책에서 배우는 지혜
 책은 나에게 부모 같은 존재요,
 독서는 헤아리고 깨달아가는 여정이어라:
 국어교육과 황경수 교수





열린 미디어와
콘텐츠가 만드는
새로운 미래,

어떻게 담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야기꾼으로서의 인간 본연의 욕구가 IT기술을 만나 수많은 '새로움'들을 창출해내고 있는 시대다. 그 새로움의 메인 줄기를 이루는 IT기술과 함께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양질의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이다.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디어와 콘텐츠는 어떻게 창조적 융합을 이뤄낼 수 있는지 두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조금 더 촘촘히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신문방송학과 최영준 교수
20년 가까이 KBS 2TV, OUN 등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현업 PD로 활동했다. 2006년 서강대학교에서 영상매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11년부터 우리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영역으로 방송 영상 콘텐츠, 방송과 수용자 미디어 심리 연구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방송제작 연출실무론>이 있다.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의 시대,
매력적인 이야기꾼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최영준 대답을 준비하면서 문득 마살 맥루한의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우리가 접하는 메시지 소통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혁명에 가깝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란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IT기술이 미디어 매체 자체를 발전시키고 있고, 그 매체에 메시지를 얹고 소통시키는 방법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처럼 미디어 매체가 더욱 개인화되면서 과거 거대 미디어 환경이 주도하던 사회 변화를 이제는

국어국문학과 소인호 교수
초기 한문소설과 동아시아 문학 교류 양상에 관한 연구와 함께 기존 소설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새로운 작품들을 발굴, 소개하는 작업을 주로 해왔다. 최근에는 융복합의 시각에서 고전소설의 콘텐츠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융합인문학회'를 창설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전기문학연구>, <고소설사의 전개와 서사문학> 등이 있다.

개인 미디어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이 미디어의 저작과 유통, 소비의 중심에 있는, 즉 미디어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 말입니다.
소인호 네, 대단한 변화의 흐름 한가운데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고전문학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4차 산업혁명도 거시적 관점에서 그리 새로운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인류 문화 자체가 융합에서 출발했고, 근대로 오면서 파편화되고 나뉘어졌던 것들이 이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과정에 있지 않나 생

각해요. 구술문화에서 문자문화로, 최근에는 다시 구술문화가 융성하면서 인류 역사, 문화가 시계추와 같이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류의 큰 틀에서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영준 교수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생각난 것이 있는데, 최근 어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문자 이전에 기호(상형문자)로 소통을 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SNS상에서 우리가 문자보다 이모티콘 같은 기호들로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표현하고 싶고, 널리 알려서 공감하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에 요즘 사람들이 더 충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욕구가 IT기술과 만나 상상 이상의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은 이제 일상어가 될 정도이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드론(Drone) 기술이지요. 향후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3D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줄 3D 카메라가 스마트폰에 탑재되고 대중화된다면 가상현실과 소셜 미디어의 결합이 가속화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제 증강현실은 실제 입체 영상을 접했을 때 현실과 구분이 안 갈 정도의 수준이니까요.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장면이 현실화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소인호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이런 현상이 그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담배가게 살인 사건'이 그 좋은 예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으로만 들던 이야기들

이 '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전래되고 확산되면서 새로 생겨난 직업이 바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한 이야기꾼이 영웅소설을 구연하던 중 영웅이 함정에 빠져 괴로워하는 결정적 장면에서, 환장 이야기를 듣던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현실과 소설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만 담배 써는 칼을 집어 이야기꾼을 찔러버린 사건이었어요. 얼마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으면 그랬을까요.

최영준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꾼은 정말 그 시대의 대단한 스토리텔러였던 셈이네요.

소인호 여담으로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미디어의 주체가 되고 현실에서 개개인이 창출해내는 미디어 속 메시지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주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영준 결국 무엇을 어떻게 담느냐, 콘텐츠의 문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인호 이 시점에서 스토리텔링의 교과서적 의미를 굳이 말해보자면, 이야기에 더해 매체의 특성에 맞게 표현한다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물론 기술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야기는 예술문화 분야는 물론이고 광고와 기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초월해 중요한 즐거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자체가 거대한 문화인 것이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원 소스 멀티 유즈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요. 디지털 시대에는 각각의 콘텐츠가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뛰어넘어 거대한 유기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스토리텔링, IT기술, 뉴미디어 사이에 상호 소통과 융합이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입니다.

최영준 맞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나가야 하니까요. 콘텐츠는 인간을 위해 대량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화된 메시지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대량 유포를 위해서는 우선 재미있어야 하죠.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특징은 비선형 스토리 구조라는 것입니다. 시간 순서에 의해 이야기가 배열된 전통적 서사구조가 아니라, 시간과 사건발생이 동시다발적이고 유동적인 시퀀스를 지녀서 다양한 스토리 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자의 몰입과

참여가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의 스토리텔링은 유저의 선택에 따라 각각의 스토리가 달라져 매우 유동적이지요. 어떤 이야기가 있다면 영상, 텍스트, 음성, 사운드, 음악,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과정을 지닐 수 있어야 경쟁력을 가집니다.

**융합적 창의 인재 양성이란
시대적 화두 안에서 미디어와 콘텐츠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가?**

소인호 이야기들이 각종 멀티미디어 환경에 맞게 변형되어 만들어지고 전개될 때 미디어 수용자들과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최영준 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의 원형을 비선형 구조로 각색하고 IT 멀티미디어 기기를 결합시켜 수용자에게 소통되었을 때, 관련 산업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대학 CK-1사업단이 추구하는 연구와 교육은 이러한 맥락에서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문화콘텐츠 기획전문가(문화콘텐츠학과), 스토리텔링 전문가(국어국문학과), 영상콘텐츠 전문가(신문방송학과), E-BOOK, VR/AR전문가(시각디자인과), 문화캐릭터 전문가(만화애니메이션학과). 이렇게 세분화해서 각각의 역량을 쌓아갈 수 있으니까요. 물론 학과 간의 융합으로 만들어지는 시너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소인호 융합적 창의 인재가 우리 시대의 큰 화두이자 요구인데, 융합이라는 개념을 잘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합의 관점을 지식의 결과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융합교육이 지금보다 더 큰 빛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저 또한 CK-1사업단 내 5개 학과의 융합교육 안에서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들에 기대가 큼니다. 콘텐츠 개발 단계에서 인문학적 통찰을 통한 원천 소스를 발굴하고, 기획과 제작 능력을 매체를 통해 표현해내고 만들고, 또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통해 완성하고 홍보까지 하는 학문적인 토대가 갖춰져 있지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마치 인간의 다섯 손가락과 같이 최상의 조합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융합교육을 해낸다면 '매직 핸드'가 되지 않을까요.

최영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도권 교육에서 창의를

배우고 경험해본 적이 없었지만, 제자들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집단창의성을 경험하게 하고 싶은 거지요. 각자 고유의 영역을 잘 해내면서 둘, 셋, 넷, 다섯이 융합했을 때 과연 어떤 창의성을,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사업단이 만들어갈 5년간의 과정은 집단창의성이 어떤 아웃풋을 내는지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소인호 그런 점에서 우리의 고민과 교육이 한시적인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구조조정의 관점에서의 융합교육이 아니라 순수하게 융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도와주길 바랄 뿐입니다. 다리를 하나 건설하더라도 여러 교각이 저마다의 힘으로 지탱을 해야 상판도 올리고 도로를 완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학과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칸막이는 유지하되 문턱을 낮추면서 상호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는 방식의 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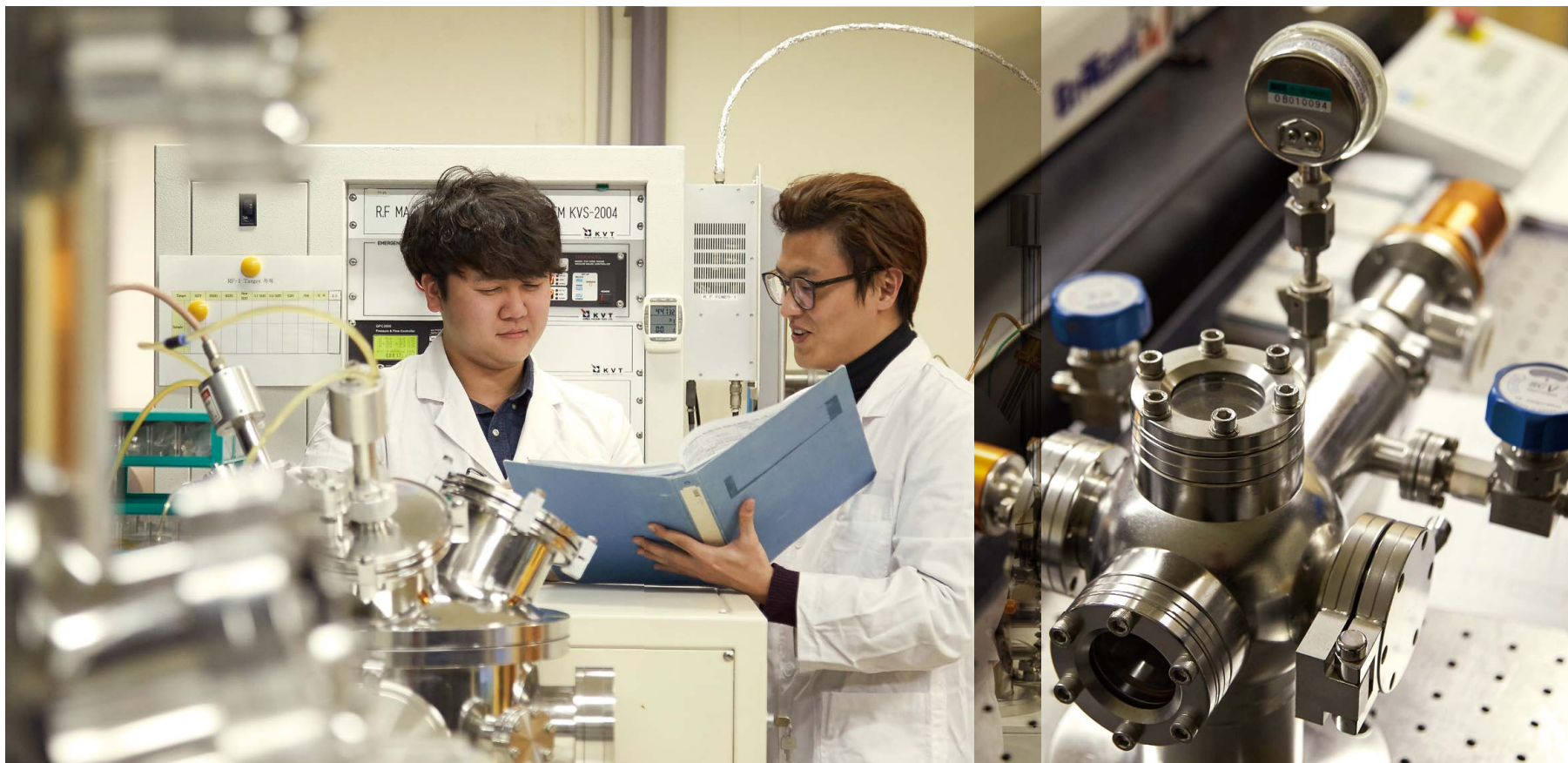
최영준 네. 사업 기간이 끝났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미디어와 콘텐츠가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며 발을 다지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힘을 주어야지요.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또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우리의 길을 일구어 가고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④

새로운 산화물 반도체 개발로

전 세계 반도체 기술의 진화를 이끌다

반도체 기술 융합의 선구자, 차세대반도체융합기술연구소

디지털 디스플레이 분야에 적용될 빠르고 안정성 있는 반도체 소자를 개발하는 일은 이 시대 엔지니어들의 소명이다. 이 일에 몰두하고 있는 차세대반도체융합기술연구소가 최근 새로운 비정질 산화물 반도체를 개발하고, 네이처(Nature)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논문을 게재했다. 세계 반도체 기술 발전에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것이다.



취재협조
청주대학교 차세대반도체융합기술연구소장 이상열 교수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 산화물 반도체 연구

빠른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은 정보통신,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바이오, 환경, 의료, 에너지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대학 차세대반도체융합기술연구소는 이러한 반도체의 한계를 극복 또는 보완하며, 타 분야와 기술 융합을 통해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반도체 물질을 개발하는 데 몰입하고 있다. 차세대반도체융합기술연구소의 주요 연구 분야는 처음부터 비정질 물질임에도 전자의 이동속도가 상당히 빠른 '산화물 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산화물 반도체는 이미 전 세계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최고의 관심 분야이자 경쟁 분야이기도 하다. 반도체는 이제 실리콘 반도체에서 산화물 반도체로 옮겨갔고, 발전 속도 역시 매우 빠른 편이다. 공기와 접촉하면 모든 물질은 산화가 되기 마련인데, 이미 산화된 물질을 이용하여 반도체를 개발하면 산화의 염려가 없다. 이 물질에 어떤 원소를 조합하느냐에 따라 전기적 특성이 달라지는데,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고 첨가하면서 원하는 특성을 얻고, 이를 통해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비정질 실리콘이 지닌 재료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산화물 반도체야말로 대면적화, 고화질, 유연화를 모두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반도체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비정질 산화물 반도체 개발 논문

우리대학 차세대반도체융합기술연구소는 이러한 산화물 반도체에 관한 한 세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반도체공학과 이상열 교수를 중심으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반도체 재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얼마 전 이상열 교수 연구팀은 새로운 산화물 반도체를 개발하고, 세계 저명 학술지에 게재해 다시 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에 사용 가능한 새로운 비정질 산화물 반도체를 개발 분석한 논문을 세계 저명 학술지인 <네이처(Nature)>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차세대 반도체 물질로 주목받는 비정

질 산화물 반도체에 실리콘을 도핑한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한 것으로, 특성을 제어하고 향상시켜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박막트랜지스터와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를 구성하는 핵심 소자로 응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래형 디스플레이와 메모리는 고해상도와 대용량을 요구하는 등 면적은 커지고, 집적도는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높은 전하이동도를 가지면서도 안정적인 구성이 가능한 산화물 반도체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이번 연구는 이러한 기술적 요구에 매우 근접한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 하겠다.

반도체 공학도들의 자부심을 높여준 연구소의 역할과 역량

미래창조과학부의 '중견연구자 지원사업'과 '광역경제권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우리대학 차세대반도체융합기술연구소가 설립 초기부터 꾸준히 집중하고 몰입해 온 연구에 대한 자랑스러운 성과인 동시에 연구소 구성원들에게는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의 메카로 차세대반도체융합기술연구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다. 이를 증명하듯 연구소는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평화원, 교육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삼성디스플레이 등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층 비정질 실리콘 산화인듐막 구조를 이용한 열방사 방지막>, <적층구조를 갖는 투명전극용 메시 및 그 제조 방법>, <다층 비정질 산화인듐갈륨이연막 구조를 이용한 저방사 필름 및 그 제조 방법> 등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무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에 더해 차세대반도체융합기술연구소는 반도체 공학과 학생들에게 학업과 연구에 있어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반도체 분야 최고의 권위자들이 교수진으로 포진되어 수준 높은 공학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연구 결과 자체가 '실시간'이라 표현해도 될 만큼 산업현장에 곧바로 적용되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공에 비해 현장감 넘치는 교육도 가능하다. 최첨단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를 열어가길 공학도들에게 질 좋은 토양이 되어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대학 차세대반도체융합기술연구소의 역할과 역량은 지금도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⑤

국어교육과
황경수 교수 편

책은 나에게 부모 같은 존재요, 독서는 헤아리고 깨달아가는 여정이어라



옛 동시의 원문 속에서 우리 말의 어어쁨을 찾아내 알리고 있는 황경수 교수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하는 것처럼 책을 읽다 보면, 저절로 공부가 된다고 말한다. 책을 통해 많은 제자들과 소통하며 각별한 정을 전하고 있다는 그에게서 다시금 독서의 경이로움을 절감하게 된다.

오래된 동시의 원문 속에서 새롭게 언어를 만나는 국어학자

어학 관련 책들로 빼곡한 연구실 한 벽면에 그림과 어우러진 동시 액자가 걸렸다. 훈민정음을 연구하는 학자의 방에서 만나는 동시는 이채롭게 다가오고, 말하는 대로 받아놓은 듯한 낯선 표기도 새롭다. 모두 옛날식 표기방식 그대로다.

“현대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해야 할 일을 남겨놓으셨어요. 나이 스이 넘어 ‘동시’에 빠지게 될 줄은 몰랐네요. ‘돌이는 숲바국질 하느라고 화초바테 업드러다가 벌한테 쓰여도 아뭏소리도 안혔습니다. 그러치만 스이가 차져네니까, 으애-하고 울었습니다.’ 충북 보은 출신 오장환 시인의 ‘숲바국질’이란 동시인데, 이 시를 읽으면 마음이 어러지고 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충북 지역의 작고한 문인들 가운데 유독 동시와 동요를 쓴 작가가 굉장히 많습니니다. 이분들의 작품들을 있는 그대로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현대어로 바꿔 인쇄된 활자 속에서는 원문이 지닌 시인의 각별한 정서를 맛볼 수 없다고 생각한 황경수 교수. 우연히 정지용 시인의 ‘향수’ 원문을 읽은 후 그의 ‘동시 원문 찾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가 운영하는 한글세종문화연구원의 주요한 일이 충북 지역의 작고한 문인들을 연구하고, 또 마을과 지명의 유래를 찾아내는 것이니 어찌 보면 동시 원문 찾기는 연구원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었지만, 이 작업은 이상하리만큼 큰 열정을 불러낸 일이었다. 시인 권태웅, 정순철, 정인섭, 권오순, 오장환, 김기진, 정지용, 정열모의 동시들이 그의 열정을 만나 원문 그대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청주시 청원구와 서원구의 버스정류장 곳곳엔 동시가 게재됐고, 지난 6월에는 충북문화관 숲속 갤러리에서 <동시동락(童詩同樂)>이라는 주제로 50여 작품을 선별해 전시하기도 했다.

문학도의 꿈을 벗어 던지고 국어학자의 길을 선택하기까지

<조선지광>, <어린이>, <개벽> 등을 찾다 보니 20세기 초 우리의 살아있는 언어들만 만날 수 있었다는 그는 오장환 문학관 관장을 설득해 유리관 안에 박제되어 있는 원문들을 들춰내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충북 옛 문인들의 속살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 때 문학도를 꿈꾸었던 그의 마

음에 불을 지핀 이 프로젝트는 그래서 이만저만 감흥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대학시절에 소설 한 편을 써서 은사님을 보여드렸는데, 제 갈 길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단박에 방향을 틀어 어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책 읽기는 지금까지 이어져 제자들과 거리낌 없이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준 비옥한 토양이 되었다. 지금도 반복해서 보게 되는 노자의 <도덕경>, 이해인 수녀의 고운 시들, 그리고 청년 시절 접했던 수많은 시집과 소설들은 언제나 자신을 바로 잡아주었다. 흔들리지 않는 역사관 속에서 지적 호기심을 채워가길 바라는 마음에 제자들에게 틈만 나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화랑세기>를 반드시 읽어볼 것을 권한다.

신입생 입학선물로 책을 선물하는 대학을 꿈꾸다

<대학인의 글쓰기>라는 강의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그는 매 시간마다 학생들과 함께 책을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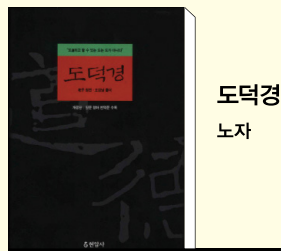
“한두 권의 책을 들고 강의실에 들어갑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또 지식이란 무엇이고 왜 공부할 필요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책만큼 좋은 소통거리가 없지요. 좋은 글귀, 마음에 와 닿은 글귀를 읽고 쓰면서 그것을 자신의 내면에 축적하는 거죠.”

황경수 교수는 제자마다 잘하는 것들을 뽑아내고 힘을 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믿는다. 제자들은 자식과 진배 없다고 말하는 그의 마음은 아이들을 위해 동시를 써 내려갔을 시인의 마음을 닮았다.

“책은 저에게 부모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거것이 없고 항상 배려해주는, 그런데 읽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책의 행간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어요. 부모님 마음도 그렇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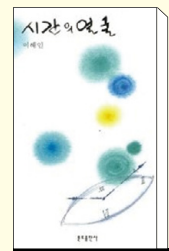
이렇듯 애잔하고 애정에 찬 마음이 제자들에게 전해질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황경수 교수. 그래서 청주대학교 신입생들에게 매해 입학 선물로 책을 선물하자고 학교 측에 제안했다고 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스무 살 봄날, 책을 통해 한 뼘 더 성장하는 제자들을 만나고 싶기 때문이다. ④

황경수 교수가 추천하는
청춘의 필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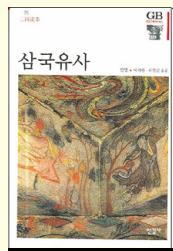
도덕경
노자

노자가 살던 춘추전국 시대는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지배층의 착취가 극심한 때로, 그러한 시대적 약 조건 속에서 노자의 철학이 완성되었다. 독자들에게 때로는 교훈으로, 통찰로, 독백으로, 명상으로, 해학으로 다가오는 노자의 주장은 물질문명에 대한 지나친 믿음을 갖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힘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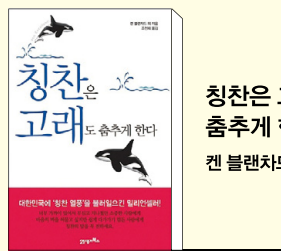
시간의 얼굴
이해인

이해인 수녀의 맑고 고운 시들을 모은 이 책은 1989년 초판이 발행된 그녀의 네 번째 시집이다. 수도자의 삶과 시인으로서의 사색을 조화시키며 기도와 시를 통해 복음을 전해온 이해인 수녀는 <시간의 얼굴>에서도 일상과 자연을 소재로 한 친근한 시적 주제와 모태 신앙이 낳은 순결한 동심을 소박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삼국유사
일연

삼국시대를 논하는 두 개의 역사서 중 <삼국사기>가 합리적이고 공식적인 자세를 취한 정사라면, 일연의 <삼국유사>는 보다 초월적이고 종교적 입장에서 기록된 역사라 할 수 있다. 민중의 의식 속에 흐르는 역사의식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고대문학의 정수인 향가 14수가 실려 있어 문학사적 가치 또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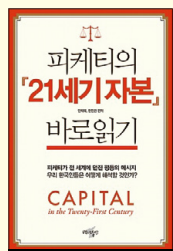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켄 블렌차드 외

칭찬 한마디로 끌어올리는 긍정의 힘을 강조하고 있는 이 책은 일찌감치 대한민국에 '칭찬 열풍'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저자가 긍정적 관계의 중요성, 칭찬의 진정한 의미와 칭찬하는 법을 소개하고, 칭찬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 변화와 인간관계, 그리고 동기부여 방식 등을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글자전쟁
김진명

한자(漢字) 속에 숨겨진 우리의 역사와 치열한 정치적 메커니즘을 소재로 한 이 소설은 명망 있는 국제무기중개상으로 출세기도를 달리던 주인공 이태민이 범망을 피해 중국으로 도피해 있던 중 소설가 '킬리만자로'의 USB를 입수하며 펼쳐지는 이야기다. 문자에 관해 은폐되어 있던 진실을 밝혀감에 따라 돈밖에 모르던 주인공이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안재욱, 현진권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가 던진 평등의 메시지로 인해 전 세계가 '피케티 신드롬'에 열광했다. 이에 대한민국은 피케티의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오랜 기간 시장경제를 연구해온 7인의 석학들이 모여 집필한 책으로, 피케티의 연구 대상 국가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

실천 實踐
세상을 밝히다

사회와 지역에 봉사하는 공존의 가치와 드넓은 세계를 꿈꾸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를 배우고 실천하는 청주대학교에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34

지역과 어깨동무
이웃과 세상을 향한 훈훈한 사랑,
연탄이 되어 겨울을 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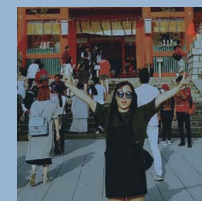
36

지식과 재능의 선순환
젓가락 문화상품 개발하는
공예디자인학과



38

나의 세계문화 스퀘기
제2외국어 장학유학파견 프로그램 후기:
일어일문학과 안소영





이웃과 세상을 향한 훈훈한 사랑, 연탄이 되어 겨울을 녹인다

겨울이면 누구에게나 따스한 온기가 필요하다. 강추위를 녹이는 온기는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우리대학 재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 교직원들이 겨울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동참했다.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기꺼이 사랑의 연탄 배달부 역할을 자처한 봉사현장 곳곳은 시종일관 웃음꽃으로 가득했다. 나눔은 곧 기쁨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S#1. 청주시 우암동 일대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어 강사들의 따뜻한 정(情) 나누기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기 직전인 11월 초, 우리대학 인근 우암동 일대에서는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봉사에 우리대학 외국인 유학생 120여 명과 한국어 강사 10여 명 등 130여 명이 우암동에 위치한 20여 가구에 무료로 연탄을 배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중국, 베트남, 일본 등지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 강사들과 함께 4개 조로 나뉘어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여 동안 1가구에 200장씩 모두 4천여 장의 연탄을 배달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손에서 손으로 전달된 연탄은 차곡차곡 창고에 쌓여갔고, 쌓여가는 연탄의 수만큼 유학생들의 보람도 커져갔다. 난생 처음 해보는 연탄배달 봉사에 힘들 법도 한데, 모두 하나같이 밝고 활기찼다. 이웃을 돕는다는 생각에 저절로 힘이 난다는 그들은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받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봉사에 나섰다고 말한다.

이날 배달된 연탄 4천여 장에 대한 구매비용은 학교 지원금과 학생, 교직원들의 모금으로 마련됐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교재나 각종 매체를 통해 그동안 접해본 나눔, 봉사, 기부 등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졌을지도 모를 우리 민족의 정(情)이나 효(孝) 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S#2. 청주시 수곡동, 내덕동, 대성동 일대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실천한 학과들

한편, 우리대학의 한겨울 사랑의 연탄봉사는 학과 차원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다. 방사선학과 학생들은 최근 청주시 수곡동 일대에서 충북방사선사협회가 후원한 연탄 2,000장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대학 방사선학과와 충북방사선사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매년 연탄배달 봉사를 해왔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어진 이번 봉사에 참여한 방사선학과 학생들은 “각 집안에 쌓이는 연탄만큼 어르신들의 걱정이 줄어드는 것 같아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대학 환경조경학과 학생들도 청주시,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12월 10일 청주시 내덕동과 대성동 등지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행사는 환경조경학과 교수 및 학생들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써달라”는 말과 함께 교내 공모전에서 수상한 상금 전액과 후원금을 기부했고, 이에 감동한 청주시와 복지관 직원들이 성금을 더하여 이루어졌다. 이렇게 모인 금액으로 지역 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4가구에 각 250장씩 총 1,000장이 지원됐고, 20가구에는 겨울철 난방유를 지원하는 등 총 24가구에 200만 원 상당의 연탄과 난방유가 전달됐다. 지역 내 민간기관과 대학의 참여로 따뜻한 마음이 더해진 것이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우리

대학 환경조경학과 학생들과 이승훈 청주시장,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직원 등 25명은 연탄 배달이 끝난 후에도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독거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집안 곳곳을 살피고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렇듯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는 추운 겨울을 보내는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성인의 자세를 일깨워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도, 차가운 공기도, 학생들의 뜨거운 이웃사랑 실천 앞에서는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겨울마다 이어지고 있는 우리대학 학생들의 선행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기대해본다. ㉠

아시아인의 공통 문화유전자 젓가락, 청주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다

젓가락 문화상품 개발하는 공예디자인학과

201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청주에서 처음으로 열렸던 젓가락 페스티벌은 매년 11월 11일을 '젓가락 데이'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여는 등 청주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대학 공예디자인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있어 화제다.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협약을 맺고, 청주지역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문화상품으로서의 '젓가락'을 개발하며 국내외적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 '젓가락'을 만드는 젊은 열정

지난 11월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옛 연초제조창)에서 열린 '2016 젓가락 페스티벌' 현장은 뜨거웠다. 2015년 청주시가 중국 칭타오, 일본 니가타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뒤 한·중·일 3국의 공통된 문화원형인 '젓가락'을 글로벌 문화상품으로 특화하기 위해 열린 이 행사는 그야말로 삼국 문화축제의 장이었다. 한·중·일 젓가락 문화와 관련한 학술 심포지엄을 비롯해 젓가락 신동과 도사를 뽑는 경연대회, 1미터 젓가락 릴레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단연 돋보인 행사는 '전통과 창작, 문화상품으로서의 젓가락 전시'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주요 참여 기관으로 이름을 올린 우리대학 공예디자인학과는 국내외 대학 중 유일하게 참여해 교수와 학생들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특히, 행사기간 중 주말에는 젓가락 제작과정을 시연하는 행사도 벌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디자인 숨결 淸숨, 젓가락의 새로운 변신을 도모하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부터 젓가락 페스티벌 참가와 상품 개발을 의뢰 받은 공예디자인학과는 2016년 1학기 동안 캡스톤디자인을 통해 30여 명의 학생들과 교수진이 함께 젓가락 디자인을 진행했다. 이규남(금속), 김준용(도자유리), 윤상희(옷칠) 교수와 학생들이 개발한 젓가락들은 철저히 우리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 직지, 소로리벌씨, 한글 등 청주 지역의 문화원형을 활용해 금속과 옷칠나전, 도자, 유리 등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젓가락과 수저받침 등의 상품을 개발했다. 공예디자인학과는 젓가락 페스티벌에서뿐만이 아니라 '2016 서울기프트쇼'와 '2016 서울미술공예페어', 그리고 일본과 대만에서 열린 전시 등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왔다. 새로운 시각의 젓가락 디자인이 우리 문화의 멋과 자부심을 담은, 탐나는 문화상품이자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예디자인학과는 '디자인 숨결 淸숨'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통해 2차 문화상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관련 창업동아리를 만들어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에 열린 국내 유일의 공예전문 박람회인 '2016 공예트렌드페어'에 참가해 학교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이렇듯 젓가락 문화상품 개발로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공예디자인학과가 음식과 인간의 인터페이스라 할 수 있는 젓가락에 앞으로 어떠한 무한 변신을 불어넣을지 그 행보가 기대된다. ㉠



Mini Interview

젓가락을 다루는 유일한 학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문화상품을 만들겠습니다
공예디자인학과 학과장 이규남 교수

젓가락 상품들을 둘러보니 아이디어가 재미있고 또 예쁩니다. 이번 작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굉장한 경험이였 것 같습니다. 처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부터 상품개발을 의뢰받았을 때만 해도 이 정도의 성과를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캡스톤디자인으로 진행했던 모든 과정과 결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낸 것 같아 기쁩니다. 도자, 유리, 금속, 옷칠 등 분야별로 팀을 이뤄 담당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소재와 주제를 정하고 작품을 디자인하면서 수많은 화학작용이 이뤄졌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도 10여 명 정도 참여했는데, 함께 의견들을 주고 받으면서 중국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페스티벌엔 일본 동경 예술대학교 팀과 중국 칭화대 팀도 참여했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해 우리대학이 참여했다는 자부심도 크지만 대학원생 이상 수준의 학생들이 작업했던 일본과 중국의 디자인에서 우리 학생들도 배울 점이 많았을 겁니다. 특히 금속 젓가락은 우리나라만의 고유 문화이기에 우리만의 차별적인 요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전시 작품으로 출발했지만, 뜨거운 호평을 받은 만큼 실용화까지도 도모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서울 기프트쇼 현장에서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시장마다 가격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우리 젓가락을 해외에서 전시하고 싶다는 단체도 있습니다. 젓가락과 관련한 테이를 웨어까지 함께 개발해보는 것이 어떠한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의 자체 브랜드 '淸숨'도 있으니,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와 손을 거친 어떤 젓가락, 어떤 문화상품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장승, 옷놀이, 벌씨, 직지 활자 등을 모티브로 작업을 해놓고 보니, 역시 우리의 것에 길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 소중하게 여기며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하고 생각을 모으는 중입니다. 내년이 우리대학 개교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70주년 기념품으로 젓가락 말고도 USB카드 등에도 우리의 아이디어를 입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작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꽤 많은 창업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수상도 많이 하고, 다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젓가락을 다루는 학과는 우리밖에 없는 만큼 본격적으로 특화작업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또, '글로벌 문화상품 콘텐츠 트랙'을 만들 예정인데, 젓가락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상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학생들은 물론 공예디자인학과 자체 경쟁력을 높여가고 싶습니다. 꿈이 많아졌습니다. 그 옛날 우리 선조들께서 손수 만들어 쓰시던 모든 것이 공예잡스니까, 그야말로 일상과 함께 호흡하는 공예디자인으로서 역할을 더 구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저 또한 기대됩니다.

언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통역사의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다

안소영
일어일문학과 3학년



해외 자매대학 제2외국어 장학유학파견 프로그램 후기

우리대학은 영어권을 제외한 제2외국어권 국가의 대학들과도 자매결연을 맺고, 유학생 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제2외국어 장학유학파견 프로그램은 일본의 키비국제대학, 아이치현립대학, 돗토리환경대학, 도카이대학 등에서 수학하며 어학은 물론 정규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1학기부터 현재까지 아이치현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안소영 학생에게서 일본에서의 즐거운 유학생활동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 하나로 교환학생에 도전하다

어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전공하는 언어의 본토에 가서 생활해보고 싶은 로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 또한 그랬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중문과 선배가 교환학생으로 중국에 다녀온 걸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다짐 하나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생각보다 많은 지원자 수에 깜짝 놀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정신으로 면접을 봤는지도 모르겠지만 면접관의 질문에 누구보다 자신 있게 대답했던 것 같다. 드디어 결과가 발표되고 최종 합격자 자격으로 일본에 가게 되었을 때는 정말 꿈을 꾸는 것처럼 행복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한 달 늦게 학기가 시작된다. 출국날짜가 정해지고부터는 해외에서 생활한다는 생각에 마냥 두근거리기도 했고, 한편으론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섰다. 하지만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이니 공부도 여행도 모두 즐겁게 즐기고 오자는 마음을 가졌다. 중학교 때 좋아하게 된 일본 가수 때문에 일본어에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때부터 내 꿈은 줄곧 일본어 통역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 내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꿈에 한 발짝 다가선 듯한 기분이었다. 물론 당장 가서 만나게 될 현지 친구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할지 걱정도 됐지만 이미 비행기는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고, 그렇게 나의 유학생활동도 시작되었다.

잊지 못할 추억과 친구를 선물한 나의 일본 유학생활동

나는 현재 일본 아이치현에 위치한 아이치현립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레벨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시험을 통해 자신의 일본어 실력을 확인하고, 유학생 수업을 듣거나 일반학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나는 주로 유학생 수업을 집중적으로 들었다. 유학생 수업이라고 해도 수업 별로 레벨이 나뉘어져 있어 초급, 중급, 상급반을 정할 수 있다. 수업을 들으며 기초를 더욱 탄탄히 다질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학부 수업 대신 유학생 수업을 들으면 일본인 친구를 만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다른 언어를 배워보기도 하면서 나의 세계관을 넓혀갈 수 있다는 점, 잘못된 일본어를 사용해도 바로 고쳐주시는 선생님이 있다는 점이 좋았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고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일본어로 발표를 한 일이었다. 유학생 수업 중에 <프로젝트 워크>라는 수업이 있는데, 수업을 듣는 사람들끼리 팀을 꾸려 특정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이었다. 우리 팀은 '모국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고, 직접 설문지를 만들어 발표를 하게 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돌리며 최종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완성했다. 드디어 담당 선생님과 유학생 친구들이 함께 고등학교를 찾아가 무사히 발표를 마쳤고, 끝난 후에는 학생들과 둘러앉아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우리가 가진 일본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한국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좋아하고 있었다. 쉽게 하지 못할 경험을 했고, 한국에서만 지냈더라면 몰랐을 것들을 알게 되어서 굉장히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한국을 좋아했던 기숙사 튜터, 일본인 친구 '사에'는 내겐 정말 잊지 못할 친구로 남았다. 곤란한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들어주고, 항상 나를 반겨주었던 사에가 한국에 가셔도 많이 그리울 것 같다.

해외 자매대학 제2외국어 장학유학파견 프로그램	
지원자격	총 평균 평점 2.6 이상인 재학생
교육내용	한 학기 동안 일본 자매대학에 장학생으로 파견되어 어학과정 (혹은 정규과정) 수강
학점인정	현지 학교 성적표 및 수료증으로 본교 12학점 인정
장학지원	연수 수료 후 다음 학기 본교 등록 시 한 학기 수업료 100만 원 감면 (연수 학기가 졸업 전 최종학기인 학생은 장학대상에서 제외) ※ 단, 교환학생 신분으로 파견되는 학생은 본교등록으로 현지 수업료가 면제되는 대신 본교등록금 감면혜택은 없음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라 생각하며 보낸 빛나는 청춘의 시간

유학생활동 내내 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행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이 아니면 일본의 많은 곳들을 가볼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다녔던 여행지 중에 가장 좋았던 곳은 교토였다. 한국에서 엄마와 할머니가 오셨을 때도, 친구가 놀러 왔을 때도 항상 교토에 갔다. 물론 교토가 아니더라도 일본의 정서는 어디서나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천 년의 수도라 불리는 교토는 정말 '아, 여기가 진짜 일본 이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일본 특유의 정서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었다. 되돌아보면 지난 9개월이 참 짧은 것처럼 느껴진다. 처음 일본에 도착해 한국이 그리워질 때쯤엔 일년이 언제 다 지나갈까 싶었는데, 이제 내게 주어진 일본에서의 생활도 2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나는 일본어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과 대화하는 것이 무서웠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속담 하나가 내 마음에 와 닿았다. 'いちごいちえ'. 해석하면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 또는 '인연'이라는 뜻이다. 올해 일본에 온 것이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기회라 생각하고 남은 2개월을 더욱 알차게 보내고 돌아갈 생각이다. 통역사라는 꿈에 한 발짝 다가선 것처럼, 스스로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일본에서 지낸 빛나는 나의 청춘을 생각하면 딛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①





나를 채우는
열두 개의 노래

물어본다.
간절함으로 아침 해를 맞이해왔는지를.
되돌아본다.
손 내밀어 다른 이의 체온을 느껴보았는지를.
들여다본다.
작은 것에 감동하며 잠시 멈추어 보았는지를.

또 한 번의 열두 달.
그 새로운 노래들에 귀 기울여가리라.
나다움으로 채워가리라.

소통 疏通

오늘을 전하다

중부권 최고 명문대학의 위상을 넘어
글로벌 시대를 이끄는 중심대학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청주대학교의 도전과 혁신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2

단신뉴스
청주대 대학원,
장학금 혜택 확대 외



44

인물뉴스
김찬석 교수,
인도네시아 포럼 연사로 참석 외



46

명사들과의 만남
곽상준 쿨엔쿨 대표이사
명사특강 외



대학원, 장학금 혜택 확대



우리대학이 일반·특수대학원의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는 등 신입생 유치에 적극 나섰다. 올해 우리대학 일반대학원은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계열 등 42개 학과 50개 전공에 대한 석사과정 124명, 19개 학과 30개 전공에 대한 박사과정 45명을 모집하고, 직장인 등을 위해 야간에 개설되는 특수대학원은 산업경영대학원과 사회복지·행정대학원, 보건의료대학원 소속 17개 학과 110명을 모집하게 된다. 이에 우리대학은 양질의 신입생 유치를 위해 일반·특수대학원 재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 비율과 금액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학기에도 대학원 재학생 389명 중 80%에 해당하는 352명에게 성적·동문·직장인·연구·학생회 장학금 등이 지급되었으며, 우리대학과 MOU를 체결한 충북도청, 충북도교육청, 청주시, 세종시 등의 공무원이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는 '산학협력특별장학'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박호표 대학원장은 "학부와 연계된 일반 대학원생은 물론, 직장에 다니는 공무원 등을 위한 각종 장학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며 "장학금 혜택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MOU 체결 기관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대학이 일반·특수대학원의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는 등 신입생 유치에 적극 나섰다. 올해 우리대학 일반대학원은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계열 등 42개 학과 50개 전공에 대한 석사과정 124명, 19개 학과 30개 전공에 대한 박사과정 45명을 모집하고, 직장인 등을 위해 야간에 개설되는 특수대학원은 산업경영대학원과 사회복지·행정대학원, 보건의료대학원 소속 17개 학과 110명을 모집하게 된다. 이에 우리대학은 양질의 신입생 유치를 위해 일반·특수대학원 재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 비율과 금액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학기에도 대학원 재학생 389명 중 80%에 해당하는 352명에게 성적·동문·직장인·연구·학생회 장학금 등이 지급되었으며, 우리대학과 MOU를 체결한 충북도청, 충북도교육청, 청주시, 세종시 등의 공무원이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는 '산학협력특별장학'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박호표 대학원장은 "학부와 연계된 일반 대학원생은 물론, 직장에 다니는 공무원 등을 위한 각종 장학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며 "장학금 혜택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MOU 체결 기관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대-충북권산업단지연합회 일자리 매칭페어



11월 1일 우리대학과 충북도 내 주력 산업군으로 구성된 충북권 산업단지 클러스터 연합회가 기업체와 학생 간 연계를 통해 중견·중소기업 일자리 재조명과 구인·구직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경상대학 세미나실에서는 연합회 측 회원들과 우리대학 산학협력단, 취업담당 교수,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BK경제연구소 박강희 팀장의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경제현황' 특강이 열렸다. 이어 우리대학 주요사업단 소개와 기업설명회, 화학·전기전자·기계 등 각 분과별 채용관련 상담도 함께 진행됐다.

청주대-중국 중서호텔관리대학 협약 체결



우리대학과 중국 중서호텔관리대학은 11월 8일 정성봉 총장과 고송도 총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환학생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고송도 총장은 이날 우리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유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양교 간 교류협력 강화에도 나섰다. 중국 북경에 위치한 중서호텔관리대학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스위스 로잔호텔관리대학으로부터 호텔경영에 대한 실습인정을 받은 대학으로, 힐튼, 메리어트, 하얏트 등의 세계적인 호텔 그룹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청주대-(사)금융경제연구원 교류협력협약 체결



우리대학과 (사)금융경제연구원은 11월 15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산학협력과 연구 등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생 창업 지원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조와 함께 ▲대학생 취업역량 개발 지원(현장실습, 인턴) ▲대학생 경제봉사단 운영을 위한 지원 및 협조 ▲세미나 및 워크숍, 포럼 등의 공동 개최 및 상호참여 ▲기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한 금융경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영화학과, 행복한 장수사진 촬영



우리대학 영화학과 학생들이 청주시 성화동, 개신동, 죽림동에 거주하는 200여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장수사진'을 촬영한 뒤 '장수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해 상품과 상장을 수여하는 등 2012년부터 이어져온 재능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날 사진행사로는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애를 관찰하면서 제작한 단편영화 <나의 순정씨>, <하늘 아래> 상영과 공연 등이 함께 진행됐다.

GTEP사업단, 멕시코 박람회 55만 불 가계약 성사



우리대학 GTEP사업단이 멕시코 미용박람회에서 55만 불의 가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단은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남미지역 최대 미용박람회인 멕시코 뷰티엑스포(Mexico, 20th Expo Beauty Show)에 12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55만 불 가량의 가계약과 85건의 바이어 상담, 2천5백 불의 현장판매를 성사시켰다. 이번 박람회를 위해 사업단은 4개월간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시장조사를 통해 ㈜바이오폴리텍의 모델링 팩과 아이패치, 콜라겐(타정, 캡슐, 가루), ㈜화니핀코리아의 마스크 팩과 헤어 제품 세트, 그리스인터내셔널의 속눈썹 연장 제품, ㈜피치텍의 근적외선 LED 미용기기, ㈜제이엘인터내셔널의 천연 살균제 슈퍼칼 등 총 5개 업체의 다양한 제품군을 갖춰 멕시코 시장을 공략했다. 또, KOTRA와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멕시코 현지 바이어와 사전미팅 스케줄을 잡고, 페이스북을 이용해 박람회 참가 상품을 사전 홍보했다. 한편, 올해로 20회째를 맞고 있는 멕시코 뷰티박람회는 총 60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참관객만 8만여 명이 넘는 중남미 최대 규모의 미용박람회다.

최첨단 비행교육용 쌍발항공기 구매



우리대학은 최근 오스트리아 다이아몬드사를 방문해 최첨단 비행교육용 쌍발 항공기 DA-42VI 1대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우리대학은 단발항공기인 DA-40NG 8대와 이밖에 도입되는 쌍발항공기 DA-42VI를 포함해 총 9대의 최첨단 비행교육용 항공기를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구매계약을 체결한 쌍발항공기는 내년 4월 국내에 도입이 이뤄져 6월부터는 비행교육이 시작될 전망이다. 170마력의 제트연료용 디젤엔진 2대를 장착하고 있다.

전국 규모 대회 수상자 간담회 개최



우리대학 정성봉 총장은 12월 21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올해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 및 공모전에서 1, 2위를 수상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국제대회 및 전국 규모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24명, 2위를 차지한 12명 등 총 36명의 학생들은 이날 정성봉 총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점심을 함께 했다. 올해 우리대학은 대학창의발명대회 대통령상을 비롯해 대학생 무역구제경연대회 최우수상, 서울정원박람회 금상 등의 무수한 학생 수상 성과를 거뒀던 자리를 마련했다.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우리대학은 12월 23일 대학원고위관리자과정 세미나실에서 '제1회 총장배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학내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29명이 참여해 '나의 학교 생활' 등을 주제로 한 '5분간 한국어 말하기'로 꾸며졌다. 한국어교육센터와 학부·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으로 나눠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뽑힌 9명에게는 상금과 기념품이 전달됐으며, 항공권과 전자제품 등의 경품 추첨과 함께 장기자랑도 진행됐다.

평생교육원, 정기연주회 개최



우리대학 평생교육원이 12월 6일 '겨울 문턱에서'라는 주제로 학내 예술대학 음악관 콘서트홀에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주회는 배우의 갈증을 열정으로 풀어내면서 실력을 쌓은 수강생들과 이들을 지도한 강사들이 하나가 되어 1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됐다. 특히 '그리운 금강산', 'Amazing Grace', '화풍병', 'Memory'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색소폰과 피아노, 하모니카, 성악 등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교수소식



김찬석 교수, 인도네시아 포럼 연사로 참석

광고홍보학과 김찬석 교수가 인도네시아 인적자본 정상회의 포럼(FHC)

이 주최한 '인도네시아 인적자본 정상회의 2016'에서 '한류: 문화수출과 함의'의 주제 연사로 참석했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획기적인 인도네시아 재능 준비방안'이라는 주제로 10월 27~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김찬석 교수는 인도네시아 관광부장관과 '국가 마케팅'을 주제로 발표한 뒤 청중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박승두 교수, 국제 학술 심포지엄 참석

법학과 박승두 교수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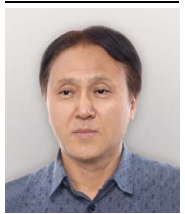
12월 1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충정'에서 '기업회생 절차상 관리인 제도'에 관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승두 교수는 '일본의 갱생관재인제도'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업의 회생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서울회생법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회생절차가 중요한 시점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김재광 교수, 폭발하지 않는 리튬 이차전지 개발

태양광에너지공학과 김재광 교수가 (주)세븐킹에

너지와 공동으로 150도 이상에서도 안전하고, 구멍이 나도 폭발하지 않는 리튬 이차전지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한 리튬 이차전지는 폭발하지 않으면서 5V 이상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전지의 작동전압과 용량을 증가시켜 에너지 밀도를 기존 전지의 1.3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 또, 가변성이 우수해 입는 전자기구나 가상현실 기기(VR)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김태철 교수, 청주어린이체험관 조성 자문위원 선임

시각디자인학과 김태철 교수가 청주 어린이체험관 자문위원에 선임되어

12월 2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 열린 '청주어린이체험관 조성 자문단 발대식'에 참석했다. 청주시는 78억 원을 들여 청주랜드 2전시관 2,975㎡를 리모델링해 올해 12월경 체험관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영유아놀이터, 어린이 체험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김태철 교수를 비롯한 6명의 자문단은 이에 필요한 다양한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승빈 교수, 장애인문화나눔 '노리터' 토크 콘서트 사회

국어국문학과 임승빈 교수가 11월 18일 장애인 문화나눔 '노리터'의 창

작연극 <내 삶에 이유가 되어준 당신> 공연 후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1층 영상관에서 이어진 토크 콘서트의 사회자로 나섰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의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에 뜨거운 눈물을 흘린 관객들은 토크 콘서트를 통해 연출, 배우들과 이번 작품의 창작 배경과 연출의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든 작품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 등의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양인덕 교수, <우울증이라는 주홍글자> 출간

경영학과 양인덕 교수가 '마음의 감기'로 비유되는

우울증이라는 <우울증이라는 주홍글자>를 출간했다. 이 책은 보스턴의료정책연구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양인덕 교수와 하버드신경과의원 양현덕 원장이 공동 집필했다. 사회적, 심리적, 유전적, 환경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우울증 중에서도 생물학적 원인에 주목하고 있는 이 책은 뇌과학의 관점에서 우울증을 다루고 있다.



박호표 교수, 청주시 시정연구모임 심사위원 참석

관광경영학과 박호표 교수가 11월 3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재길 부

시장의 주재로 열린 시정연구모임 최종 연구결과 발표회에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신입직원부터 간부급 직원까지 총 12팀이 참가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주제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박호표 교수를 비롯한 8명의 전문가들은 예리한 질문과 조언으로 각 팀의 연구성과 발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김영환 교수,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참석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김영환 교수가 11월 11일 천안 동남구청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천안다운 원도심 재생 방안을 모색하는 의정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 원도심 재생방안과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영환 교수는 이 자리에서 "역전 시장 특화나 공영주차장 확보와 같은 구역·공간별 특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희준 교수, 제34차 전북재정포럼 참석

행정학과 손희준 교수가 전라북도도와 시군 재정 담당자, 학계 등 지방 재·세

정 전문가들이 모여 전북 익산에서 진행된 제34차 전북재정포럼에 초청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손희준 교수는 "전북 재정운용의 우수사례는 타 시·도의 귀감이 되고 있으나, 이에 안주하지 말고 전북만의 유일한 재정정책 방향을 모색해 타 시·도가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모범사례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동문소식



석영한 동문, LG그룹 계열사 서브원 부사장 승진

석영한(조경학과, 86년 졸업) 동문이 12월 1일 LG그룹 계열사 이사회

가 단행한 2017년 임원 인사에서 서브원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신임 석영한 부사장은 우리대학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 희성관광개발에 입사했고, 이후 서브원 CC운영사업부장 상무를 거쳐 2011년부터 레저사업부장 전무로 근무해왔다.



황천용 동문, 포병학교 교육여단장 취임

황천용(공업경영학과, 86년 졸업) 동문이 우리 대학 졸업생 중 처음으로

장군으로 진급하며 11월 22일 포병학교 교육여단장으로 취임했다. 황천용 장군은 학사 8기로 소위 임관해 2사단 포병연대장, 3군단 화력참모, 합동참모본부 화력항공전력과장, 육군포병학교 교육지원단장 및 전술교육단장 등 전후방 각지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으며, 합동 화력 분야와 포병전력 운영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김진태 동문, 충북테크노파크 제5대 원장 선임

김진태(경영학과, 84년 졸업) 동문이 11월 24일 충북테크노파크 제5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진태 원장은 취임사에서 "충북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바이오·의약, 화장품·뷰티, 이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원장은 1988년 행정고시(32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자원부 샌프란시스코 주재 한국무역관,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장·바이오나노과장, 한국표준협회 전무이사를 거쳐 삼성전자 삼성협력센터 전무를 역임했다.



송정연 동문, 제8회 무진국악대전 일반부 대상 수상

송정연(한국음악과, 99년 졸업) 동문이 9월 25일 광주 빛고을 국악전

수관에서 열린 제8회 무진국악대전에서 일반부 종합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송정연 동문은 전국전통공연예술경연대회 명인부종합최우수상, 전국청소년민속경연대회 지도자표창장 등을 수상했고, 한·러수교 20주년 모스크바 동양사박물관 공연 등에 참여했다.



박현규 동문, 충북배구협회 초대 회장 취임

박현규(경영학과, 2007년 졸업) 동문이 10월 31일 충북배구협회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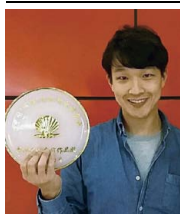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간 충북배구연합회장으로 활동해온 박현규 회장은 엘리트-생활체육 통합에 따라 9월에 열린 충북배구협회 총회에서 이종명 충청배구협회장을 누르고 회장에 선임됐으며, 임기는 2020년 협회 총회가 열릴 때까지다. 신임 박현규 회장은 청원군 청년회장 등을 지냈고, 현재 오송읍 재향군인회장을 맡고 있다.



유승만 동문, 제25대 대전지방 교정청장 취임

유승만(공법학과, 92년 졸업) 동문이 9월 12일 제25대 대전지방교정청

장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원칙에 입각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따뜻한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만 청장은 우리대학 공법학과와 사이타마 정책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행정고시(35회)를 통해 교정관으로 임관한 뒤 안양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대구교도소장, 대구지방 교정청장 등을 역임했다.



김민하 동문, 중국위해국제단편영화제 금상 수상

김민하(영화학과, 2015년 졸업) 동문이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위해에서 열린 '2016 중국위해국제단편영화제'에서 <오 마이 크레딧>이라는 작품으로 금상과 특별인기상을 수상해 2관왕에 올랐다. 예술과 현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이 작품에는 영화학과 재학생들이 제작에 함께 참여해 기쁨을 더했다.



박세호 동문, 제주지방경찰청 차장 임명

박세호(법학과, 88년 졸업) 동문이 12월 5일 경찰청이 발표한 경무관

57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와 총경 16명에 대한 승진 인사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신임 박세호 차장은 1988년 간부후보생 36기로 경찰에 입문해 2007년 총경으로 승진한 뒤 충북경찰청 수사과장과 정보과장, 대전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대전경찰청 제2부장, 충북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송재준 동문, 충주중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송재준(법학과, 84년 졸업) 동문이 2017년 1월 출범 예정인 충주중원문

화재단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충주시는 12월 23일 열린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이사회에서 송재준 동문을 대표이사로, 김철용 세무사를 감사로 선임했다. 신임 송재준 대표이사는 1984년부터 2016년까지 충주MBC에 재직하면서 <중원문화연구 3부작> 등을 연출했으며, 앞으로 2년간 재단을 대표하면서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2016년 10월~12월

2016. 10. 26

대학생 창업 장사꾼에서 기업가로

곽상준
쿨앤쿨 대표이사



곽상준 쿨앤쿨 대표이사가 10월 26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 열린 명사초청 특별강좌의 강연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곽상준 대표이사는 “일생 동안 겪어야 할 고통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고통총량 일정의 법칙’에 따라 성공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말했다. ‘대학생 창업 장사꾼에서 기업가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 곽상준 대표는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은 자만과 방심을 불러온다. 자신에 대한 검소함과 긍정 마인드를 갖고 명확한 목표와 열정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곽상준 대표이사는 대학생 시절 온라인 세일즈와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인 ㈜쿨앤쿨을 창업한 뒤 한국온라인셀러협회, ㈜파워샵, 쿨앤쿨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잇따라 설립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2016. 11. 9

한국문화의 세계화

김장실
전 국회의원



11월 9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는 김장실 전 국회의원의 명사초청 특별강좌가 열렸다. 이번 강연에서 김장실 전 의원은 “현재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에서 조만간 출판물과 의류 등 한류문화의 폭이 더욱 더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 민족은 8세기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세종대왕 때 민중성과 자주성이 담보된 문화융성기를 맞았다. 또한 영·정조시대의 실학은 실질적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한국 근대화의 뿌리가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 전 세계인이 한국인 삶의 양식을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생활

문화 한류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장실 전 의원은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과장,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예술의전당 사장 등을 거쳐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016. 11. 16

도전과 전략이 파워리더를 만든다

박강수
전 배재대학교 총장



박강수 전 배재대학교 총장이 11월 16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 열린 명사초청 특별강좌에서 “꿈은 좌절하지 않고 끝없는 노력으로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며 학생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성공이란 수없이 많은 선택과 실패에서 나타나는 몇 안 되는 결과물”이라고 말한 박강수 전 총장은 이어서 “자유민주주의의 경쟁력은 피와 눈물, 그리고 땀”이라 강조하고, “내·외부의 자극을 받아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삶을 사는 것”이라며 “노년을 생각하면

서 희망을 잃지 않는 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연을 펼친 박강수 전 배재대학교 총장은 그동안 경기대 대학원장,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한국상품학회 회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 경동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6. 11. 23

알파고 시대와 책임기의 미래

안찬수
책임기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안찬수 책임기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이 11월 23일 열린 명사초청 특별강좌에서 강연자로 나섰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종이 책 신간은 매년 늘어나는 등 앞으로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한 안찬수 처장은 “미래에도 책과 도서관은 정보, 지식, 문화,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독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상형성과 어휘력, 집중력, 감수성을 향상시킨다. 학생들도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해 성숙한 시민사회를 실현하자”고 밝혔다.

안찬수 사무처장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문위원,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한국위원회 운영위원, 기적의도서관 전국협의회 책임감사 등을 맡고 있으며, 시집 <아름다운 지옥>, <한 그루 나무의 시> 등을 출간했다.

2016. 11. 30

글로벌 시대의 창조와 도전 (중국 창업과 진출전략)

김준봉
북경공업대학 교수



11월 30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는 김준봉 북경공업대학 교수의 명사초청 특별강좌가 열렸다. 이번 강연에서 김준봉 교수는 “중국은 농업화와 공업화, 정보화 시대 등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공존하는 곳”이라고 말하며, “이 같은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정해지면 멈추지 말고 전진하는 적응력과 순발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세계는 경제와 문화, 정보의 단일화와 함께 민족주의 복고 등 지역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한 김준봉 교수는 “변화는 세상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것과 동시에 기회도 주어진다”고 밝혔다. 김준봉 교수는 현재 현대한옥학회 국제회장, 건설교통평가원 심의위원, 자연환경생태건축연구소 소장 등을 맡고 있으며, <중국 속 한민족 전통민가>, <다시 중국이다> 등의 저서를 출간했다.

2016. 12. 7

미래를 향한 혁신, 40년을 향한 행진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 12월 7일 우리대학에서 명사초청 특별강좌를 열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국제화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이근면 전 처장은 “대학 졸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환경은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제 Job영토가 세계로 뻗어 있는 만큼 학문, 전공도 이 시대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삶의 목표를 설정한 뒤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1976년 삼성에 입사한 뒤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팀 팀장, 강원대학교 초빙교수, 삼성광통신 대표이사, 한국인사관리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6. 12. 14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김정은의 미래

강명도
경기대 북한학과 교수



12월 14일, 강명도 경기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대학 청암홀에서 열린 명사초청 특별강좌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김정은의 미래’에서 “북한은 현재 3대 세습체제가 이어지면서 점점 더 생활이 어려워지고 공포정치는 날로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김정은이 리더십이나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북한은 오직 김정은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체제붕괴는 시간문제다. 하지만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명도 교수는 평양외국어대학 불어학과를 졸업한 뒤 인민보육부 정치보위대학 연구실장 교수, 김영성 주석공전 부사장 등을 지내다 94년 탈북했으며, 현재 동포사랑전국연합회 대표, 한국자유총연맹 중앙이사 등을 맡고 있다.

2016. 12. 21

창조적 상상력으로 최초에 도전하라

김영환
전 국회의원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12월 21일 ‘창조적 상상력으로 최초에 도전하라’는 주제의 명사초청 특별강좌를 열었다. “창조하는 존재, 도전하는 삶을 살 것”을 학생들에게 주문한 김영환 전 의원은 학생들에게 “현재는 과거와 달리 창조적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와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 모두 21세의 나이에 기업을 창업해 세계를 움직이는 초대기업을 만들었다”며, “이들 모두 창의적 상상력을 가졌기에 성공이 가능했다”

고 밝혔다. 충북 괴산 출신인 김영환 전 의원은 청주교, 연세대 치의학대와 대학원(경제학)을 졸업한 후 15, 16,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회지식경제위원장과 제3대 과학기술부장관 등을 역임했다.

청주대학교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 세계 수준의 글로벌 명문대학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청주대학교의 발전기금 조성사업은 기부자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조금씩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대학은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기금 조성사업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청주대학교가 지역사회의 꿈을 아우르는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청주대학교의 내일을 위한 기부 및 후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금의 종류 및 기부 방법

장학기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주대학교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연구지원기금

청주대학교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교수들의 학술연구 지원과 해외파견, 논문 저술 활동, 세미나 개최 등의 국내외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도서기금

청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의 도서 구입 및 학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기금

청주대학교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 기자재 구입을 비롯한 각종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지정기금

기부자 본인이 특정 학과나 단과대학, 대학원, 연구소 등을 직접 지정하여 기탁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일반기금

기부자가 기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대학에 위임하는 것으로, 청주대학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기부금 납부 방법

무통장 입금
기부자가 발전기금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11-010540
(예금주: 청주대학교 발전기금위원회)

CMS

약정서에 기부자의 계좌와 이체 희망일 등을 기재해 주시면 매월 대학발전기금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급여공제

기부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청주대학교 교직원인 경우에만 가능)

현물 기부

현금 이외의 자산도 양도 가능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합니다.

(주식과 채권 등의 유가증권/ 토지, 건물, 기자재 등의 유형 고정 자산/ 로열티 수령, 저작권 등의 권리 및 보험 등)

후원의 집 안내

가입대상

청주대학교의 발전에 동참하고, 사회공헌활동의 일부인 나눔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방법

청주대학교 발전을 위해 후원을 원하시는 업체는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give.cju.ac.kr>)에서 '후원의 집 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시거나 파일함 안에 동봉된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신 후 이메일 또는 Fax를 통해 대외협력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 모두 이용 가능)

가입혜택

- ① 소득세 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② 청주대학교 후원의 집 현판(스티커)을 부착해 드립니다.
- ③ 각종 학교행사 시 후원의 집 이용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 ④ 홈페이지, SNS, 학교신문, 소식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청주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가족의 이용을 장려합니다.
- ⑤ 각종 학교 인쇄물 발송 및 기념품 지급 등의 혜택을 드립니다.

발전기금 및 후원의 집 문의

청주대학교 대외협력팀
(2850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TEL 043-229-8012
FAX 043-229-8015
E-mail 00121@cju.ac.kr

인류 최초 3극점 7대륙 최고봉 등정
허영호 (청주대 85학번)

삼성전자 디자인그룹 전무
강윤제 (청주대 87학번)

한국인 최초 세계 50대 성악가
연광철 (청주대 84학번)

세상에 파란을 일으켜라

세계를 향한 당신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청주대학교는 세상에 파란을 일으킬
당신을 기다립니다.

스무살의 푸른심장 청주대학교

